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金學東 · 具仁謀 · 朴城範 · 李丙旭 · 金基都 *

A Study on Five Viscera Figures of *Uibang-yuchwi* and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Kim Hag-Dong · Koo In-Mo · Park Seong-Bum
Lee Byung-Wook · Kim Ki-Wook *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With Taoist medicine, there is a way of improving one's health by adopting a unique discipline called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The method was reintroduc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hen it was finalized. The viscera figures in the *Uibang-yuchwi* is one of the good examples in which the photos influenced by the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appeared in medical literature. This research is aimed to study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how medical knowledg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an important health theory of Taoist medicine, and how Korean medicine was affected by Taoist medicine.

Methods : We will compare and study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following publications: the *Taipingjing* from the Dong-Han Period when the concepts of five viscera spirit were conceived; the *huangtingjing* from the Wei-Jin-Nan-Bei-Chao Period when the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was finalized; the *Yuanshenjing*, the *Yuzhoujing* and the *Buxietu* based on Taoist medicine; and the *Uibang-yuchwi*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sults & Conclusions : SThe medical knowledge at the initial stage made its way into Taoist medicine, forming the foundation of health theories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the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After some exchanges of medical knowledge and practices between Taoist medicine and other existing medicines, the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reappeared in medical literature in the form of drawings and was used to cure diseases.

Key Words : visceral figures, *Uibang-yuchwi*, five viscera spirit meditation, taoist medicine

I. 序 論

도교의학의 범주는 한의학의 주요 분야인 藥物과 鍼灸 치료 이외에 煉丹術과 養生術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養生術 가운데에는 ‘五臟存思法’을 이용한 수양을 통하여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太平經』에는 “무릇 人神은 체내에서 생기지만 바깥으로 다닌다. 바깥으로 다닐 때 時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신체에 해를 입히게 된다. 돌이켜 봄으로써 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어떻게 추적한다는 것인가? 곁에 사람이 없는 빈 집의 내부에 畫像을 藏色과 四時와 상응시켜 생각하라. 위에는 藏象이 있고 아래에는 十鄉이 있으니, 누워서도 걸려 있는 象을 存思하며 이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五藏神은 二十四氣에 報應할 수 있고, 장차 五行神 또한 이를 보좌하여 구할 수 있으니, 萬病이 모두 나을 것이다.”¹⁾라고 하여 오장의 형상 그림을 창문에 걸어, 이를 존사하면 오장신이 돌아와서 만병을 치유해 준다고 적혀 있다.

때문에 도교의학에서는 明堂圖와 같이 침구치료를 위한 그림이 아닌 五臟神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여 신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러한 五臟神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해부 경험과 더불어 의학적 지식이 함께 필요했기 때문에 의학지식과의 교류가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의 의학지식이 도교의학에 흘러들어와 양생술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五臟存思法의 생성과정에도 기여를 하였다. 이후에는 도교의

학과 기존의 의학 영역 사이의 교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의학서적에 五臟存思法의 영향을 받은 圖像들이 도입되어 질병치료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의학 문헌에 五臟存思法의 영향을 받은 圖像이 유입된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醫方類聚』의 臟腑圖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한의학 문헌인 『東醫寶鑑』 역시 도교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때문에 도교의학의 대표적인 양생 이론체계인 五臟存思法 형성과정에 의학 지식이 영향을 주었다가 다시 한의학이 도교의학의 영향을 받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방류취』의 장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金의 연구²⁾가 대표적이다. 金의 연구에서는 『의방류취』와 胡愷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를 비교하여 의서인 『의방류취』에 도교 서적인 『補瀉圖』가 어떻게 유입되었는가에 대하여 의서의 편제와 일부 臟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도교의학의 오장존사법의 형성 과정에 의학 이론이 어떻게 흡수되었는지, 그리고 『의방류취』에 다시 포함되는 과정에서의 문헌적 고찰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³⁾를 바탕으로 하여 五臟存思法의 형성 배경부터 의학지식의 흡수과정 그리고 다시 의서에 五臟存思法이 도입되는 과정과 『의방류취』에 들어온 『臟腑圖』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五臟存思法의 형성과 발전

1) 東漢時期的 『太平經』

‘五臟神’에 관한 학설은 東漢時代의 道書인 「태평경」에 言及이 있으며, 이 시기의 의학에 있어 臟腑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ook.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ongdaero 123, Gyeongju, Gyeongsangbuk-Do, Korea.

Tel : +82-54-770-2664

E-mail : omdkkw@hanmail.net

Received(7 October 2015), Revised(15 November 2015),

Accepted(16 November 2015).

1) 王明.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78. 권18-권34까지 闕提에서 “夫人神乃生內, 返遊於外, 遊不以時, 還爲身害, 卽能追之以還, 自治不敗也. 追之如何, 使空室內傍無人, 畫像隨其藏色, 與四時氣相應, 懸之窗光之中而思之, 上有藏象, 下有十鄉. 臥卽念以近懸象, 思之不止, 五藏神能報二十四時氣, 五行神且來救助之, 萬疾皆愈.”라 하였다.

2)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3) 李起熏. 內景圖와 修真圖에 關한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成致奎, 丁彰炫. 身形藏腑圖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3). 坂出祥伸. 「內景圖」와 沿革. 中國古代科學史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1991. 伊藤光遠 譯. 煉丹修養法. 京都. 谷口書店. 1987. 山田慶兒. 中國古代的計量解剖學.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6.

의 이론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醫學과 道敎는 각기 발전하게 되었다.

『태평경』 권72 「齊戒思神救死訣」에서는 ‘오장신’을 存思하면 却病延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四爲神游出去者 思念五臟之神，晝出入見其行游，可與言語也，念隨神往來，亦洞見身耳⁴⁾，四時五行之氣，來入人腹中，爲人五臟精神 …… 此四時五行精神，入爲人五臟神，出爲四時五行神精，其近人者，名爲五德之神，與人藏神相似⁵⁾。故肝神去，出遊不時還，目無明也，心神去不在，其唇青白也，肺神去不在，其鼻不通也，腎神去不在，其耳聾也。脾神去不在，令人口不之甘也。頭神去不在，令人胸冥也。腹神去不在，令人腹中央甚不調，無所能化也。四肢神去，令人不能自移也”⁶⁾라 하였다.

『태평경』의 ‘오장신’ 역시 그 근처에 있는 것은 『黃帝內經素問』이나 『難經』 등의 학설과 관련이 있는데, 「선명오기론」의 “五臟은 藏하는 것으로 心은 神을 藏하고, 肺는 魄을 藏하고, 肝은 魂을 藏하고, 脾는 意를 藏하고, 腎은 志를 藏한다.”⁷⁾고 하였으며, 『難經·34難』의 “五臟에 七神이 있어 각각 무언가를 藏하는 것으로, 臟이란 人의 神氣가 藏하는 것으로, 故로 肝은 魂, 心은 神, 肺는 魄, 腎은 精 志, 脾는 意 志를 藏한다.”⁸⁾고 하였다.

이것을 道敎적으로 變容하면 ‘오장신’이 되는 것인데, 『태평경』은 道敎의 양생의 서적으로서 오장육부를 중요시하며 固精煉氣하여 神仙에 이르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魏晉南北朝時期 - 「黃庭經」

魏晉 시대에 道士들이 쓴 『황정경』(『內景經』과 『外景經』으로 나뉜다)은 古代 道敎의 경전에서 인체의 百脈과 臟器 및 五官은 각각 주된 神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근본으로 삼아, 고대 의학경전의 臟腑

理論과 결합하여, 七言韻文 형식으로 만든 道敎 上清派의 전형적인 수련법인 “存思法”⁹⁾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논술하였다.¹⁰⁾

도교는 『황정경』을 ‘壽世長生の 妙典’이라고 칭하였고, 인체는 여러 神으로 구성됨에 五臟이 주가 되며, 存思의 功은 오장을 깊이로 삼는 까닭에 ‘存思’ 자체의 五臟神¹¹⁾의 名字·服飾·氣色·形態를 중시

- 9) “存思法”이란 道敎에서는 神은 無所不在하며 無所不存한다고 인식한다. 만약 어떠한 神인 存思할 수 있다면 神은 곧 바로 몸에 안착할 수 있고, 長生不死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存思와 服氣는 왕왕 함께 결합해서 延年益壽의 목표를 만들기도 한다. 『雲笈七籤』에는 여러 종류의 存思法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을 「存思命法」、「紫書存思九天眞女法」、「紫書存思元父玄母訣」、「三九素語玉精眞訣存思法」、「存思三洞法」、「存元成皇老法」、「存帝君法」、「存玄一老子法」、「思修九宮法」、「思九宮五神法」、「存大洞眞經三十九眞法」、「老君存思圖十八篇」 등에 소개 되어 있다. 그리고 “存思法”을 “存思身中景象法”、“存思身外景象法”、“存思內外景象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存思身中景象法”이다.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를 띠지 않고 오장 및 丹田 가운데서 氣가 所出한다는 생각이다. 存思五臟을 ‘內視法’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 등에 기재되어 있는 存思는 모두 臟腑圖形이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臟腑의 神이다. 道敎가 창시될 때부터 사람 몸의 각 부분에는 神이 장악하고 있고, 인체 내부의 神과 천지의 神은 서로 상응하기에 道家들은 인체 내부의 神을 存思하였다.

둘째. “存思身外景象法”이다.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상 자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外景인 圓기, 빛, 해와 달, 구름, 안개, 별, 팔괘 등이 있다. 이러한 存思는 내부와 외부를 결합한 경우가 많은데, 외부로 부터 내부에 이르거나 혹은 服氣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종교적인 성격을 띤 내용과 外景을 결합한 경우로 각종의 神眞이 되기도 하며, 이를테면 三清, 太上老君, 九天玄女, 北斗七星, 二十八星宿 등의 경우이다. 神眞을 存思하는 경우는 왕왕 服氣와 결합되기도 하였다. “存思身外景象法”은 실제로 “存服外氣法”에 속한다.

셋째. “存思內外景象法”이다.

이러한 방법은 存思하는 대상이 이미 신체의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는 경우로 存思元氣法, 存思五臟氣法, 存思三素雲法, 存思日月光華法, 三洞法, 存思赤白二氣法, 守玄白法, 服紫霄法, 酥沐法, 寶照法 등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다.

- 10) 박성범, 道敎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p.54.
11) 心·肝·脾·肺·腎을 五臟이라 한다. 또 각각의 臟器에는 그것의 주된 생리적인 기능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다.

4) 王明, 太平經合校·戊部三, 北京, 中華書局, 1978, p.283.

5) 王明, 太平經合校·戊部四, 北京, 中華書局, 1978, p.292.

6) 王明, 太平經合校·乙部, 北京, 中華書局, 1978, p.27.

7)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범인문화사, 2014, p.155.

8) 葉林, 難經正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1, p.60. “五臟有七神, 各何所藏郁.然藏者, 人之神氣所舍藏也. 故肝藏魂, 肺藏魄, 心藏神, 脾藏意與志, 腎藏精與志也.”

하였다. 또한 五臟神을 存思하는 것 이외에, 자연계의 日·月·星辰을 存思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외계의 日月의 精華를 섭취하여 체내의 元氣와 결합함으로써 神을 保하고 形을 온전히 하여, 壽命을 延長하고 불노장생 할 수 있다”¹²⁾고 하였다.

『황정경』에는 ‘오장신’의 설명이 확대되어 五臟六腑와 五官의 神名이 있고, 八景神¹³⁾과 二十四眞說¹⁴⁾이 등장한다.¹⁵⁾ 『黃庭內景經』의 “散化五形變萬神”¹⁶⁾의 뜻은 『황정경』을 외우고 神을 부르면, 장부가 편안해지고 젊어진다고 보았다. 이것이 五臟存思法을 통하여 延命益壽하는 도교의 內丹術이 요체이다.

이와 같이 『황정경』은 도교사상과 의학이론이 결합된 책으로, 영향력은 비교적 커서 東晉 이후에는 ‘黃庭之學’의 一派를 이루었다. 위진 시기에 ‘오장신’의 存思는 이미 일반적인 도술이 되어있었다. 많은 注本이 있으며, 본문에서 다루었던 五臟神圖와 관련하여 서적으로는 당송시기의 『황정내경오장육부보사도』와 『황정내경오장육부도』에서 ‘黃庭經’의 요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두 권의 내용이 같은데, 다만 전자는 각각의 臟器에 그림이 있고, 후자는 그림이 없는 대신 膽腑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내용은 圖說·修養法·相病法·醫方·治臟腑六氣法·月禁食忌法·引導法을 포함하고 있다.

3) 唐·宋時期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황정내경경』의 오장론

은 의학적 오장론을 도교적으로 變容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후의 의학의 전개 과정 중에서 ‘五臟神’의 사고가 다시 의학 분야로 역수입되었다는 현상이 보여 진다.

唐代 孫思邈은 『千金要方』에서 “有六童子三玉女守之. 神名藍, 藍主藏魂”¹⁷⁾, “神名句句, 主藏神”¹⁸⁾, “神名卑卑, 主藏營”¹⁹⁾, “有十四童子七女子守之, 神名鳥鴻, 主藏魄”²⁰⁾, “神名僂僂, 主藏精”²¹⁾이라고 五臟의 神名을 들고 있다²²⁾. 손사막은 唐初의 유명한 도사이고, 그의 의학 사상에 도교적 오장관이 혼입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영향력이 크고 의학이론 가운데 體內神의 생각이 유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손사막의 『천금요방』에서 ‘五臟神’의 사고가 역수입되어, 의학이론 가운데 체내신의 생각이 유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경』과 『난경』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뇌’의 개념을 『황정경』에서는 “뇌”의 구조적인 인식 뿐 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泥丸’으로 설정한 것은 의학의 이론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黃庭通甲緣身經』과 『上清黃庭五臟六腑眞人玉軸經』 그리고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五臟神과 관련된 圖像과 문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내용은 유사하다. 앞에서 언급한 3의 서적은 唐·宋 시대에 나타난 3부의 도교 저서이다. 이 3부 저서의 특징은 바로 『내경』과 『황정경』의 장부이론에 의거하며, 오장과 하나의 부(膽腑)에 각기 하나의 짐승의 모습을 한 神이 배합되었다. 이는 南北朝에서 宋代 사이의 장부이론에 대한 道醫가 드러난 시기이고, 당시의 의학 임상과 도가 수련에 대해 모두 중요한

12)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p.54.
13)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p.1107. “도교의 상상 속의 신의 이름. 사람의 몸에 있다고 생각되는 三元五行의 신을 가리킨다.”
14)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pp.834-835. “二十四神. 도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몸 가운데 있는 神이름. 사람의 몸에는 上中下 三部(즉 丹田)가 있고, 매 部안에 八景의 神이 있어, 이것들을 합하면 24眞이 된다. 『二十四生圖景』에 의거해서 『二十四神行事訣』 등에 실려 있다.”
15)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p.54.
16)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上清章』 卷11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98.

17) 孫思邈. 千金要方·肝臟脈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04.
18) 孫思邈. 千金要方·心腸脈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33.
19) 孫思邈. 千金要方·脾臟脈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67.
20) 孫思邈. 千金要方·肺臟脈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02.
21) 孫思邈. 千金要方·腎臟脈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39.
22)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p.65.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五臟存思法

‘五臟存思法’이 ‘五臟神’이 육체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띠는 것은 『黃庭外景經』이 최초이지만, 『황정외경경』에는 오직 脾神의 이름이 보이고 나머지 神은 언급되지 않았다. 五臟神의 神名, 宮室, 服色, 機能에 대한 설명은 東晉時代 후반이 되어 유포됐다고 여겨지는 『황정내경경』에 기술되었다²³⁾.

『태평경』에는 오장의 형상 그림을 창문에 걸어, 이를 존사하면 오장신이 와서 만병을 치유해 준다고 적혀 있는데, “무릇 人神은 즉 내부에서 생기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작용한다. 작용함에 있어 時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신체에 해를 입히게 된다. 돌이켜 봄으로써 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어떻게 추적한다는 것인가? 곁에 사람이 없는 빈 집의 내부에 畫像을 藏色과 四時와 상응시켜 생각하라. 위에는 藏象이 있고 아래에는 十鄉이 있으니, 누워서도 걸려 있는 象을 存思하며 이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五臟神은 二十四氣에 報應할 수 있고, 장차 五行神 또한 이를 보좌하여 구할 수 있으니, 萬病이 모두 나올 것이다.”²⁴⁾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畫像이 오행사상에 뿌리내려져 있다는 것은, 인용문의 말미에 ‘오행의 신이 서서히 와서 이를 구조한다.’고 하였으니, 이로 인해 五臟神說 및 五臟神의 畫像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보면서 存思하는 行法이 後漢末期에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魏晉 시대의 上清派에 속한 後人들에 의하여 五臟神의 畫像을 보면서 ‘存思’하는 行法이 행해졌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存思’의 수행과정 중 思念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丹田 부

위에 집중하는 것을 주장한 荀悅과 같은 부류와 泥丸에 사념을 집중할 것을 언급하는 『황정내경경』과 같은 부류가 있다.

3. 『의방류취』로의 재진입

1) 『황정둔갑연신경』 및 『상청황정오장육부진인육축경』

도교에는 적어도 唐宋시대까지 각 한 종류의 장부에 배속된 신의 개념이 확장될 때까지 『내경』의 神藏思想도 이어졌고, 각 장부의 형태는 간략하게 정리되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중심적으로 『황정경』 臟腑神의 관념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3부 저서가 각 장부의 신을 토론할 때, 진일보하여서 동물의 습성을 차용하여서 『黃庭經』 장부 신의 특징을 더하여 명백하게 밝혔고, 게다가 동물을 선택하여 사용할 때는 고대 방위신의 구성에서 더 벗어나 그 시대 도가가 활발하고 실용적으로 상세히 논술했다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底本人인 『正統道藏』 第31冊에 수록된 『연신경』²⁵⁾²⁶⁾에는 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25) 不著撰人. 『黃庭通甲緣身經』 《正統道藏》 第31冊. 서울. 法仁文化社. 1987의 판본은 본문의 비교 연구에 활용하였고,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 卷11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의 판본은 본문의 주석에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正統道藏』 第31冊에 수록된 『黃庭通甲緣身經』에는 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내용도 오장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지 않는다. 그런데 『雲笈七籤』 권14 三洞經教部(본 논문의 『黃庭通甲緣身經』의 저본은 君房 編輯 蔣力生 等 校注. 雲笈七籤. 北京. 華夏出版社. 1996.을 참고, 내용을 『正統道藏』本과 비교하여 인용하기도 한다)에 수록된 동일한 서적의 명칭인 『黃庭通甲緣身經』이 『雲笈七籤』에서 기재되어 있다.

『雲笈七籤』은 宋代 眞宗시기 張君房이 편집한 대형의 도교 서적이다. 그 傳承過程은 알 수는 없지만, 道教에서는 책장(書箱)을 ‘雲笈’이라 하며 서적을 ‘三洞四輔’의 七部로 나누었기에 이에 연유하여 書名을 지어진 것이다.

26) 不著撰人. 『黃庭通甲緣身經』 《正統道藏》 第31冊(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4968.)에는 五臟神에 관하여 “心神丹元, 字守靈, 形長九寸, 丹錦誦裙. 肺神皓華, 字虛成, 形長八寸, 素衣裳帶. 肝神龍烟, 字含明, 形長六寸二分, 青錦被衣. 腎神玄冥, 字有嬰, 形長三寸六分. 脾神常在, 字魂庭, 形長七寸三分, 黃蒼錦衣. 膽神龍耀, 字威明, 形長三寸六分, 九色錦衣綠華裙. 右六腑眞神, 處五臟之內, 六腑之宮, 形如嬰兒, 色如華童.”라 하여 六腑神의 命名과 字 및 形에

23) 麥谷邦夫. 『黃庭內景經』 試論. 東洋文化. 62. 1982.

24) 王明.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78. p.27. “夫人神乃生內, 返遊於外, 遊不以時, 還爲身害. 即能追之以還, 自治不敗也. 追之如何, 使空室內傍無人, 畫像隨其藏色, 與四時氣相應, 懸之窗光之中而思之, 上有藏象, 下有十鄉. 臥即念以近懸象, 思之不止, 五臟神能報二十四時氣, 五行神且來救助之, 萬疾皆愈.”

내용도 오장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지 않는다. 다만 《운급칠첩》²⁷⁾ 권14 三洞經教部(北京, 華夏出版社, 1996)에 수록된 동일 서적의 명칭인 『黃庭通甲緣身經』에서는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과(이하 『玉軸經』이라 약칭함, 《正統道藏》 第56冊, 서울, 法仁文化社, 1987) 그리고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이하 『補瀉圖』라 약칭함, 《正統道藏》 第11冊, 서울, 法仁文化社, 1987)의 본문 내용은 유사하다.

위에서 언급한 3의 서적은 唐·宋 시대에 나타난 3부의 도교 저서이다. 이 3부 저서의 특징은 바로 『내경』과 『황정경』의 장부이론에 의거하며, 오장과 하나의 부(臆腑)에 각가 하나의 짐승의 모습을 한 神이 배합되었다. 이는 南北朝에서 宋代 사이의 장부이론에 대한 道醫가 드러난 시기이고, 당시의 의학 임상과 도가 수련에 대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작자는 胡愔으로 號를 太白山 見素子이며, 唐代의 著名한 氣功養生家이다. 「序文」에서 그녀는 “어려서 부터 玄門(道學)을 사모하여, 함이 없는 뜻을 단련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들어, 黃庭의 오묘한 이치를 열람하여, 아름답고 푸른 돌에 새겨진 옛사람의 글을 궁구하여”²⁸⁾라고 하여 양생과 기공에 뜻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玄門을 얻게 하는 것이 드무니, 가는 털만큼의 차이는 천리를 벗어난다. 지금 여러 관점을 찾아 모으고, 작게 들은 바를 비우고 버려서 옛 경전을 근거하여

찾아 별도로 圖式하였다 …… 선종인 大中 2年 즉 848년(戊辰)에 저작한다.”²⁹⁾고 밝혔으니, 이러한 이유가 『황정내경오장육부도』가 찬술된 배경이다.

최근 金은 “胡愔은 唐나라 때 활동했던 女醫師이자 女道士로서 호는 見素子 또는 見素女라 한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또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를 지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저작이 있다. 이 저작은 『胡愔方』, 內景에 관련한 문헌, 外景에 관련 문헌류가 있다. 저작 등의 書名에 있어 黃庭·內景·外景이란 용어가 많이 출현하는 것은 『황정경』의 체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황정경』에 대한 연구를 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장육부와 內景이란 용어를 통하여 호음은 외단 쪽 보다는 인체 내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황정경』과 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³⁰⁾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金은 黃龍詳의 의견에 따라 『의방유취』의 「五臟六腑圖」가 “『황정내경오장육부도』와 『황정내경오장육부보사도』의 저자로 추정한다”³¹⁾고 하였으며, 그 추정에 따라 『의방유취』의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와 저자를 판단하면서 『황정내경오장육부보사도』의 서문을 기준으로 848년 무렵³²⁾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일본 승려인 惠運의 저술인 『惠運律師書目錄』에 기록된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을 기준으로 847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³³⁾.

그러나 도장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편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의방유취』의 「五臟六腑圖」만의 특징도 발견된다³⁴⁾고

관련한 논술은 언급되어 있지만, 六禽獸와 장부를 연계하여 언급한 부분은 없다.

27) 그러나 동일한 서적의 명칭인 『黃庭通甲緣身經』은 《雲笈七籤》에서 기재되어 있는데, 《雲笈七籤》은 宋代 眞宗시기 張君房이 편집한 대형의 도교 서적이다. 그 傳承過程은 알 수는 없지만, 道敎에서는 책장(書箱)을 ‘雲笈’이라 하며 서적을 ‘三洞四輔’의 七部로 나누었기에 이에 연유하여 書名을 지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雲笈七籤』(宋 張君房 編輯 蔣力生 等 校注. 雲笈七籤. 北京, 華夏出版社, 1996.)의 『黃庭通甲緣身經』을 底本으로 삼았다.

28) 胡愔 撰.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序文』 《正統道藏》 第11冊.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 8520. “幼慕玄門, 鍊志無爲, 棲心淡泊, 覽黃庭之妙理, 窮碧簡之遺文”

29) 胡愔 撰.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序文』 《正統道藏》 第11冊.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8520. “使後學之輩罕得其門, 差之毫釐, 謬逾千里. 今輒搜羅管見, 罄竭謬聞, 按據舊經, 別爲圖式 …… 時大中二年戊辰述”

30) 金大亨 安相佑.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9(2), 2003.

31)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3.

32)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12.

33)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p.12-13.

하였다.

그 중 『의방유취』의 「五臟六腑圖」에서는 원문과 주석을 구별하였으나 나머지 두 도장본 문헌은 원문과 주석을 섞어서 기술하여 원저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³⁵⁾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의방유취』에서 참고한 판본이 도장본 보다 더 앞선 시기의 것이거나, 혹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³⁶⁾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五臟六腑圖』와 『修真十書』에 포함되어 있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를 동시에 비교해보고 판본이 더 좋은 『五臟六腑圖』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본다.”³⁷⁾고 하였다.

이는 金의 『의방유취』의 「五臟六腑圖」의 저자와 저술시기에 관한 내용 중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가 유사하므로 「五臟六腑圖」의 저자가 胡愔이고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생각과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원저자의 뜻을 혼동하게 하는 실수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록1-5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臟六腑圖」와 『황정내경오장육부보사도』의 비교시 장부의 情志와 관련된 부분은 『보사도』의 내용이 대부분 많지만 膽은 없고, 동물 모양의 神의 형태, 神의 성질, 사람 모양의 神의 모습, 安神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사도』의 내용이 적거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하기도 하여 규칙성이 없다. 이는 한 사람이 기존의 문헌을 대상으로 증보를 하거나 요약하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傳承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

정되나, 저자가 같다거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비교하여 저술시기가 빠르거나 느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황정내경오장육부도』의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本書는 각 장부에 따른 氣功과 養生에 관한 내용을 다룬 도가의학의 전문 서적이다. 「六臟圖」篇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경』의 음양오행학설을 통하여 인간의 精神과 情志, 형체 조직, 오관과 장부의 연계 그리고 자연 환경의 각종 원인이 장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에 대한 설명에 있어 생리, 병리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비교적 완전하게 정리하여, 약물을 비롯한 치료 방법과 기공 등의 이론을 확립하여 장부의 질환과 노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논술은 『소문』의 「음양상대론」, 「금계진언론」, 「선명오기편」, 「오장생성론」, 「장기법시론」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핵심적 내용인, 인체의 臟、腑、經脈、氣血、精、神의 生理、病理와 四時陰陽과의 관계를 상합하고 연관시키고 있다. 그 요점은 ‘자연의 음양을 파악’하고 ‘정신 수양’을 통하여 ‘염담허무’의 담백한 마음을 지녀, 精、氣、神을 보존하여 ‘늡음을 막고 장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영추』의 「천년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장부의 병증과 특징 및 노화를 표현하였고, 아울러 各臟에 따른 明堂部의 찰색을 통한 望診과 五味의 苦欲補瀉法을 밝힌 「相病法」篇, 장부에 따른 月令과 洛書의 卦象을 배합하여 도가의 수련법을 밝힌 「修養法」篇, 사기를 몰아내는 신체동작을 서술한 「導引法」篇, 오음을 사용하여 호흡을 통한 장부의 치료를 밝힌 「吐納法」篇, 각각의 장기에 따른 방제의 구성과 수치 및 복용법을 제시한 「治病方」篇, 계절에 따른 음식의 금기를 밝힌 「食忌」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卻老延年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였다.

3) 『醫方類聚』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방유취』에 제5권에서 인용된 「오장육부도」는 작자나 저작 년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34)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과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31.

35)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과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32.

36)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과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34.

37)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과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p.34.

최근 馬는 『중의문헌학』에서 “唐代 女道士인 胡愔의 『황정내경오장육부도』1권은 현존하며,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 「자서」에 의하면 舊圖에 근거하여 편찬하여 그렸다고 하였는데, 현재 본문 가운데 단지 五藏神圖만 존재하고 臟腑圖는 이미 缺損되었다. 또한 일찍이 『의방유취』에도 『오장육부도』 1권의 佚失된 글과 그림을 수록하고 있지만 편찬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대부분 胡愔의 저작과 일치하므로 이는 다른 전본의 하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佚文 가운데 ‘處士孫思邈’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唐初以後에 편찬되어 轉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臟圖와 內臟神圖가 부가되어 있는데, 단지 肺肝脾腎膽의 6개 그림만 있다. 이 그림들이 여러 번 중복하여 베끼고 그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진면목을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지만, 早期의 내장 해부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기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가치가 있다.”³⁸⁾고 하였다.

(1) 「肺臟圖」

“폐장의 병을 치료하는데 ‘시 [咽]’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시 [咽]’하고 내쉬는 숨은 사법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폐는 金宮이며 오장을 덮는 華蓋이다. 본래 제일 위에 자리 잡았는데 가슴속에 마주 여섯 잎이 있고 빛은 마치 흰 비단에 붉은 빛이 내비치는 것 같다(남자는 80살이 되면 폐기가 쇠약해져 魄이 흩어진다). 무게는 3근 3냥이며 서방 백색이 폐에 들어와 통하였고, 그 구멍이 코와 연결되어 있다. 형체에 있어 피부와 털이 된다. 폐의 경맥은 少商에서 시작되었는데, 폐는 오장의 으뜸이며, 기의 근본이다 …… 방위는 서방이다(兌란 金을 상징한 것으로, 寅에서 받아 巳에서 생겨나고 酉에서 왕성하고 亥에서 병들어 子에서 죽고 丑에서 묻힌다). 그 계절은 가을이다 …… 폐의 神은 皓華이고 자는 虛成이다³⁹⁾. 대체 폐는 兌의 기이고 金의 정이다. 빛은 희고 모양은 懸磬(경쇠)과

같다. 신의 현상은 白獸(흰 짐승)과 같다. 폐는 魄이 생하고 육동자로 변화하며 길이는 7촌이며, 흰옷을 입고 兵杖 가지고 폐에 왕래한다. 또한 폐에는 7동자와 14옥녀가 지킨다고 하였다.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대개 폐장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 님을 안정케 하며, 그 형상을 보존하려면 쓸데없는 생각과 욕심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질고 옳은 마음을 길러서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어서도 소리치지 않으면, 그 금의 기운을 안정시킨 뒤에 그 생기를 온전하게 하면 자연의 고른 기운과 합치게 될 것이다. 폐는 대장과 상합하며, 위로는 코를 주관하므로 인체의 폐에 風이 침범하면 코가 막힌다 …… ”⁴⁰⁾

(2) 「心臟圖」

“심장을 치료하는데 ‘아 [阿]’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아 [阿]’하고 내쉬는 숨은 사법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심은 火宮인데 폐장의 아래와 간장의 위에 있는 장기로서 아래로 1치쯤 鳩尾와 상대된 곳이 있다. 빛은 마치 흰 비단 속에 짙은 붉은 빛이 비치는 듯하며, 형상은 피지 않은 연꽃 봉오리와 같다(남자가 60살이 되면 심기가 쇠약하여 지기 때문에 헛된말을 하고 잊어버리기를 잘한다). 무게는 12냥이다. 남쪽의 붉은 빛이 심에 통하고 그 구멍이 혀와 연결되어 있다. 형체는 맥이 되는데, 심장의 맥은 中衝에서 출발한다. 심장은 생명의 근본이며, 神이 거처하는 곳이다. 또한 심장은 모든 장부의 주인이니 밝게 운용하여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써 심장이 神을 저장하는 뜻이며 또한 임금의 직능을 지니어 神明이 드러나는 것이다.

40)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 제5권 「五臟六腑圖·肺臟圖」. 서울. 醫聖堂. 1993. p.113. “治肺用咽, 咽爲瀉, 吸爲補. 肺, 金宮也. 爲五臟之華蓋. 本一居上對胸有六葉, 色如縹映紅, (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 重三斤三兩, 西方白色入通于肺, 關竅于鼻. 形在皮毛, 脈出于少商. 肺者臟之長, 氣之本也 …… 爲西方, 兌金也(受于寅, 生于巳, 王于酉, 病于亥, 死于子, 墓于丑). 爲秋 …… 肺神皓華虛成. 夫肺者兌之氣, 金之精, 其色白, 其象如懸磬, 其神形如白獸. 肺生魄, 化爲玉童, 長七寸, 素衣持兵杖來往于肺也. 一云: 肺有七童子, 十四玉女守之. 其神多怒, 人之怒者, 蓋發於肺臟. 欲安其魄, 而存其形者, 當收思斂欲, 合仁有義, 不怒其怒, 不聲息, 其金而後全, 其生則合乎太和也. 肺合於大腸, 上主鼻, 故人肺風則鼻塞.”

38) 馬繼興. 『中醫文獻學』 「五臟論類著作」.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42.

39) 不著撰人. 『四氣攝生圖』 《正統道藏》 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77.

사방을 감독하고 명령하기에 五神이라 부르며, 임금을 太衛公이라 부른다. 심은 帝王과 같고 바로 중앙에 거처하여 또한 靈臺라 부르기도 한다 …… 방위는 남방이다(離는 화다. 火는 기운을 亥에서 받고寅에서 나며 午에서 왕성하고, 申에서 병들고 酉에서 죽으며 戌에서 묻힌다). 그 계절은 여름이다 …… 心神은 丹元이며 字는 守靈이다⁴¹⁾. 대개 심은 離의 기운이고 火의 精이며 빛은 붉고 모양은 연꽃 봉오리와 같고 형상은 朱雀鳥와 같다. 심은 신을 생하며 옥녀로 변화하기도 하며 길이는 8촌이며, 비단 옷을 입고 玉莢를 지니며 매년 心府로 출입하여 그 神이 번조로우면 기준하는 바가 없어진다. 사람이 난폭한 것은 대개 심장에서 일어난다. 그 신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온전히 하려는 사람은 곧 忠을 온전히 하고 孝를 실천하고 義를 보충하고 仁을 편안히 하여 그 풍속을 그치고 그 급함을 고요하게 하고 그 치열함을 멈추게 하고 그 신을 맑게 하여 그 몸을 온전히 하면 곧 中和에 합치할 것이다.”⁴²⁾

(3) 「肝臟圖」

“간을 치료하는데 ‘우 [吁]’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우 [吁]’하고 내쉬는 숨은 사범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간은 木宮으로서 명치아래 쪽 약간 왼쪽에 있다. 왼쪽은 3엽이고 오른쪽은 4엽인데 빛은 흰 비단에 보라색이 비치는 듯하다(남자가 50살에 간 기운이 쇠약하여 진다. 간 기운이 쇠약하면 간엽이 얇아지며 담즙이 줄어들므로 눈이

어둡게 된다). 무게는 4근 4냥이다. 동쪽 푸른빛이 간장에 들어와 통하였고 구멍이 눈과 연결되어 있다. …… 간의 빛은 크고 작은 푸른 잎이 서로 중첩된 형상이다. 간은 罷極의 근본이며 魂이 들어 있는 곳이다. 왼쪽 눈은 해이고 王父이고 양이며, 오른쪽 눈은 눈물이고 달이며 王母이고 음의 정이다. 간은 大尙書라 부르며 또한 大夫라 하며 淸冷宮이 된다 …… 방위는 동방이다(목은 申에서 기를 받고 亥에서 나며 卯에서 왕성하고 巳에서 병이 들고 午에서 죽고 未에서 묻힌다). 그 계절은 봄이다 …… 간의 神은 龍烟이며 字는 含明이다⁴³⁾. 무릇 간은 震의 기이며 木의 精이며 색은 푸름이요 형상은 박이 달려 있는 것과 같고 그 신의 모습은 靑龍과 같다. 간에서 魂이 생하며 변화하면 두 명의 옥동자가 되니, 한명은 푸른 옷을 입고 또 한명은 누른 옷을 입고 있으니, 모두 크기는 9촌이 되며 간에서 나온 玉漿을 지니고 있다. 또 말하기를 간에는 세 명의 옥동자와 여섯 옥녀가 지킨다고 하였다. 그 신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대개 간에서 일어난다. 그 혼을 편안히 하고 그 나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풀과 가시에 은택을 입고, 은혜를 庶類에도 베풀 이후에 그 삶을 온전히 하면 곧 太淸에 합할 것이다.”⁴⁴⁾

(4) 「脾臟圖」

“폐장의 병을 치료하는데 ‘후 [呼]’하고 내쉬는

41)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75.

42)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제5권 「五臟六腑圖·心藏圖」. 서울. 醫聖堂. 1993. pp.114-115. “治心用阿, 阿爲瀉, 吸爲補. 心火宮也, 居肺下肝上, 對鳩尾下一寸, 色如縹映絳, 形如蓮花未開之狀, 凡丈夫至六十, 心氣衰弱, 言多錯忘也. 重十二兩. 南方赤色, 入通于心, 關竅于舌, 在形爲脈, 出於中衝.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 且心爲諸臟之主, 明運用生, 是以心藏神, 亦君主之官也. 神明出焉. 監領四方, 亦號五神, 君亦號太衛公. 心居帝王, 正居中央, 亦號曰靈臺 …… 心神丹元字守靈. 夫心者, 離之氣, 火之精, 其色赤, 其如蓮蓬, 其神形如朱雀鳥. 心生神, 化爲玉女, 長八寸, 錦衣持玉莢, 每出入于心府, 其神躁而無準. 人之暴急者, 蓋發於心《府》也. 欲安其神, 而全其形者, 則全忠履孝, 《補》義安仁, 止風《爭》, 其火息, 靜其急, 其熾《澄》, 其神而全其形, 則合中和也.”

43)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73.

44)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제5권 「五臟六腑圖·肝藏圖」. 서울. 醫聖堂. 1993. p.116. “治肝用吁, 吁爲瀉, 吸爲補. 肝, 木宮也. 居心下小近左, 左三葉, 色如縹映絳, 凡丈夫至六十, 肝氣衰, 肝氣減葉薄膽, 目不明也. 重四斤四兩. 東方青, 入通于肝, 關竅相于目 …… 肝色靑翠, 大小相重之象也 …… 肝者罷極之本, 魂之處也. 左目爲日, 爲王父, 爲陽. 右目爲月, 爲王母. 爲陰之精也. 肝號大尙書, 亦號大夫, 爲淸冷宮 …… 爲東方, 震木也. 木受氣于申, 死于午, 生于亥, 王于卯, 病于巳, 墓于未者也. 爲春 …… 肝神龍烟, 字含明. 夫肝者震之氣, 木之精, 其色靑, 其象懸如匏, 其神形如靑龍. 肝生魂, 化爲二玉童, 一靑衣, 一黃衣, 各長九寸, 持玉漿出于肝臟. 一云: 肝有三玉童子, 六玉女守之. 其神好人, 人惠, 蓋發於肝也. 欲安其魂而延其齡者, 則當澤被芻棘, 恩覃庶類, 而後全其生, 則合乎太淸者也.”

숨을 이용한다. ‘후 [呼]’하고 내쉬는 숨은 사법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비장은 土宮이며 배꼽에서 위로 3치 되는 곳에서 太蒼(위)을 가리고 있다. 그 빛은 흰 엷은 비단 속에 누른빛이 내비치는 것 같고(남자로서 70이 되면 비장 기운이 허약하기에 윤기가 없고 몸이 파리해진다). 무게는 2근 3냥이며 중앙의 황색이 비장에 통하였고 그 구멍이 입과 연결되어 있다 …… 비는 黃庭이 되며, 또한 中主가 되니 黃龍君이 된다. 또한 諫議가 되고, 또한 瘡癩의 官이다 …… 방위는 중앙이다(坤은 토이다. 기를 巳에서 받고 申에서 나고 子에서 왕성해지며 寅에서 병들고 卯에서 죽으며 辰에 묻힌다). 계절로는 늦은 여름에 해당한다. 神은 常在이고 字는 魂定이다⁴⁵⁾. 무릇 脾는 坤의 기이고 土의 정이다. 빛은 누르고 모양은 覆盆(엷은 대야)와 같다. 신의 모양은 鳳(봉황)과 같다. 비장은 意思를 주관하고 그 신은 봉황과 같으며, 변화하여 한명의 옥녀가 되며 길이가 일곱 치로 비장에서 돌아다닌다. 그 신은 질투가 극렬하다. 대개 사람은 질투는 비장에서 일어난다. 흙은 일정한 바른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질투도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부인이 곧 투기가 심함은 陰氣를 잘 타기 때문이다. 그 신을 편안하게 하려면 마땅히 음식을 멀리하고 색을 줄여서 적게 생각하고 근심을 물리쳐 흙의 덕을 키운 이후에 그 삶을 온전히 할 것이다. 비장은 太陰과 상함한다.”⁴⁶⁾

(5) 「腎臟圖」

45)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80.

46)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제5권 「五臟六腑圖·脾臟圖」. 서울. 醫聖堂. 1993. p.117. “治脾用呼, 呼爲瀉, 吸爲補. 脾土宮也. 掩太蒼在臍上三寸, 色如縞如黃. 凡丈夫至七十, 脾氣虛而皮膚枯瘦者矣. 重二斤三兩. 中央黃色, 入通于口 …… 脾爲黃庭, 亦爲中主, 爲黃龍君也. 亦爲諫議, 亦爲倉廩之官也 …… 爲中央. 脾土也, 受氣于巳, 生于子, 病于寅, 死于卯, 墓于辰也, 爲季夏 …… 脾神常在, 字魂定. 夫脾者, 坤之氣, 土之精, 其色黃, 其象如覆盆, 其神形如鳳. 脾生意, 化爲《一》玉女, 長《七》寸, 循環於脾臟也. 其神列嫉妬, 人之嫉妬《者》, 蓋起於脾臟也. 土無正形, 故無準也. 婦人妬甚者, 乘陰也. 欲安其《意》, 則當去欲寡色, 少思屏慮, 長其土德, 而後全其生也, 則合乎太陰”.

“신장의 병을 치료하는데 ‘취 [吹]’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취 [吹]’하고 내쉬는 숨은 사법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신은 水宮인데 왼쪽 신과 오른쪽 신은 배꼽과 마주선 허리뼈에 붙어 있다. 그 빛은 희고 엷은 비단 속에서 자주 빛이 내비치는 것과 같다(남자가 60살이 되면 腎氣가 쇠약하기 시작하여 머리털이 빠지고 이가 빠지며 70살이 되면 온몸이 모두 쇠약해지고 90살이 되면 신기가 마르고 경맥이 비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腎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 무게는 3근 2냥이다. 북방의 흑색이 신장과 통하였고 그 구멍이 前陰과 後陰에 연결되어 있다 …… 방위는 북방이다. 坎은 수이다(水氣는 巳에서 받고 申에서 나고 子에서 왕성하고 寅에서 병들고 卯에서 죽고 辰에서 묻힌다). 계절로는 겨울이다. …… 神은 玄宜이며 字는 育嬰이다.⁴⁷⁾ 무릇 腎은 坎水의 기이며 水의 정이며 빛은 검고 모양은 懸石(懸石)과 같고, 神의 모습은 흰 사슴(白鹿)과 같다. 두개의 머리에서 지혜가 나오며 옥동으로 변화하며 길이는 1척으로 腎臟에 출입하는 것은 神이 조화로운 것이다. 사람의 유순함이 이르러 그 뜻에 순종한 후에 삶의 몸체를 온전히 하면 곧 太淸에 합치 할 것이다 …… 무릇 신장은 一宮에 있어서 지혜를 주관하며, 사람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하여, 정신이 맑아 멀리 밝게 하여 만사에 막히지 않도록 하면, 형체가 온전하게 된다. 또한 신장은 겨울의 3달에 힘을 쓰는데 이때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단히고, 만물이 깊이 들어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녁 7-9시에 잠을 자서 아침 3-5시에 일어나 음기에 작용에 알맞게 하고 음을 밖으로 내보내고 양을 내부에서 보호하여 이빨과 뼈를 기르며 정신을 담담하고 편안히 하여야 한다. 이를 거역하면 신장이 상한다.”⁴⁸⁾

47)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p.22878-22879.

48)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제5권 「五臟六腑圖·腎臟圖」. 서울. 醫聖堂. 1993. p.118. “治腎用吹, 吹爲瀉, 吸爲補. 腎水宮也, 左腎右腎前對臍, 博者腰脊, 色如縞映紫, 凡丈夫至六十, 腎氣衰, 髮墮, 齒焦枯, 經脈空虛, 人之有如枯, 七十形體皆極, 九十腎樹之有根也. 重三斤二兩, 北方黑色, 入通于腎, 關竅于二陰 …… 腎神玄宜, 字育嬰, 夫腎者坎之炁, 水之精, 其色黑, 其象如懸石, 其神

(6) 「膽臟圖」

“담의 병을 치료하는데 ‘희 [喜]’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희 [喜]’하고 내쉬는 숨은 사법이 되며 들이 쉬는 숨은 보법이 된다. 담은 간에 붙어 있는데 그 빛은 옅은 흰 비단 속에서 푸른빛이 내비치는 것과 같다. 무게는 3兩 3銖이다. …… 膽은 膽蛇라고 하는데 용기와 건장하게 한다. 담은 근에 상하며 담은 6부의 정기의 빛이다. 담은 中正의 기관으로서 모든 결단이 여기서 나온다. 담의 神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다⁴⁹⁾. 무릇 膽은 金의 정이고 水의 기이다. 그 모양은 표주박과 같고 신의 모양은 龜蛇(거북과 뱀)와 같다. 변화하면 옥동자가 되며 크기는 1척이며 손에 창을 들고 있으며 담낭 사이를 달렸다가 쉬기도 한다. 담의 신의 작용으로 용감하게 결단함은 대개 쓸개에서 생겨난다. 그 神을 편안하게 하려면 마땅히 분쟁을 그만두고 仁으로서 義를 보충한 이후에 삶을 온전할 수 있으니, 즉 이는 太和에 상합하는 것이다.”⁵⁰⁾

III. 考 察

『황정경』은 도교사상과 의학이론이 결합된 책으로 東溟 이후에는 ‘黃庭之學’의 一派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多數의 注本이 있으나 五臟存想法에 대해서는 『황정내경연신경』과 『황정내경옥축경』 및 『황정내경보사도』에서 臟腑圖와 요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金禮蒙이 편찬한 『의방유취』⁵¹⁾의 「五臟

圖」에서는 3부의 그림과 내용을 종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3부의 도교 서적에서는 『내경』과 『황정경』은 일맥상통함을 논술하고 圖像으로 이치를 비유하였고, 『의방유취』에는 ‘諸書聚類’ 입장에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수록하였다. 아래에서 4부의 서적에 수록된 특징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肺臟圖

한의학에서 肺는 膈上 즉 胸中에 위치하고 있어 『내경』에는 體腔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位置하여 “肺爲華蓋”라 하였는데, 『황정경』에서도 “肺部之宮, 似華蓋”⁵²⁾라 하여, 폐를 오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장부로 인식하였고, 폐의 기능에 관하여 『황정경』에서는 “七元之子, 主調氣”⁵³⁾라 하여 ‘七元’은 天에서는 日月五星을 가리키고, 인간에 있어 耳目口鼻의 七竅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元陽子が 注하기를 “元陽子曰, 七元之君, 負甲持符辟除凶事, 而布氣七竅, 主耳目聰明, 七元, 七竅之元氣也.”⁵⁴⁾이라 하여 人身의 五官七竅는 天地와 相通하므로 ‘七元之子’라 하였다. 日月五星은 運行을 하며 七元之子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은 調氣에 의해서 행해지며, 또한 “外應中岳, 鼻齊位”⁵⁵⁾라 하여 외부에서 호흡의 통로로서 面의 中央인 中嶽 즉 脾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문』 「오장생성편」의 “諸氣者皆屬於肺”⁵⁶⁾와 「육절장상론」에는 “肺者氣之本”⁵⁷⁾라 하여 肺의

形如白鹿, 兩頭生智, 化爲玉童, 長一尺, 出入于腎藏, 其神和也. 人之柔順, 其至而後全生, 則合乎太清也 …… 夫腎處一宮, 主智, 使人慧利, 神彩踈明, 不滯于事, 則固而全形也. 此腎者冬之用三月, 乾坤氣閉, 萬物伏藏, 戊寢寅起, 與玄陰并, 外陰內陽, 以養齒骨, 以擔其神, 逆之則傷腎.”

49)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81.

50)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正醫方類聚』제5권 「五臟六腑圖·膽臟圖」. 서울. 醫聖堂. 1993. pp.119-120. “治膽用憶, 憶爲瀉, 吸爲補. 膽搏着肝, 色如靑映靑, 重三兩三銖 …… 膽爲膽蛇, 能勇健, 膽者筋之應也. 膽爲六府之精色, 膽者中正之官, 決斷出于此焉. 膽神龍曜, 字威明. 夫膽者, 金之精, 水之氣, 其象如懸瓠, 其神形如龜蛇, 化爲玉童, 長一尺, 執戟在手, 出入奔弛于膽囊之間. 其神《多勇決》者, 蓋發於膽臟. 欲安其身, 當息寢寢爭, 與仁輔養, 其後全生也, 《則合乎太和也》.”

51) 김기욱 외15人.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192. “11세기 이후 중국의학과 한국의학 사의의 편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바로 『醫方類聚』의 간행이다. 세종 때(1445년) 왕실의관 및 집현전 학사들이 대거 참여해 만든 365권의 『의방유취』는 세종 당대에 간행되지 못하고 3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성종 때인 1477년 266권으로 30권이 간행되었다.”

5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肺部章』第9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5. “務成子注: 金宮也, 肺在五臟之上, 四垂爲宇也.”

5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肺部章』第9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5.

54)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肺部章』第9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5.

55)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肺部章』第9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5.

56)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82.

吸氣기능이 腎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根”이라고도 하는데, 즉 肺는 呼를 위주로 하고 腎은 納을 위주로 하여 一呼一吸, 一出一入함으로써 비로소 호흡기능을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황정내경경』에서 말하는 肺의 機能과 다르지 않다.

또한 『영추』 「맥도편」에서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矣”⁵⁸⁾ 라 하여, 이것 역시 「황정내경경」의 ‘外應中岳, 鼻齊位’의 이론적 바탕이 되며, 후대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注』에서 “肺開竅於鼻, 左孔爲庚, 右孔爲辛 …… 肺者五臟之長, 氣之本也 …… 於液爲涕. 涕肺之液也, 腎邪入肺則多涕也 …… 鼻爲肺之官, 肺氣旺則鼻通, 肺病則不知香也”⁵⁹⁾라 하였으니, 「황정경」에는 “喘息呼吸, 體不快”⁶⁰⁾ 라 하여 ‘肺主氣’의 기능 상실을 말하고 있다.

이밖에 『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옥축경』에서는 「사기조신대론」⁶¹⁾, 「음양응상대론」⁶²⁾, 「본수」⁶³⁾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에서는 「금괘진언론」⁶⁴⁾, 「육절장상론」⁶⁵⁾, 「영란비전론」⁶⁶⁾, 「본수」⁶⁷⁾, 「구침론」⁶⁸⁾, 「천년」⁶⁹⁾편의 의학적 내용이 선별되었고, 『의방유취』에서는 『보사도』의 내용과 거의 상동하다.

57)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8.
58)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34.
59) 陳可冀. 中國傳統老年醫學文獻精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694.
60)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肺部章』 제9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61) 「四氣調神大論」의 “秋三月, 天地氣明, 肅殺萬物, 奮臥雞起, 用安至精, 公施抑怒改息, 兩相形長, 秋之道也, 逆之則傷肺.” 수양법과 유사하다.
62) 「陰陽應象大論」의 “上主於鼻”와 유사하다.
63) 「本輸篇」의 “肺合於大腸”과 동일하다.
64) 「金匱眞言論」의 “西方白色入通於肺, 開竅於鼻.”와 동일하다.
65) 「六節藏象論」의 “氣之本也.”과 유사하다.
66) 「靈蘭秘典論」의 “肺者, 相傳之宮也. 治節出焉.”과 동일하다.
67) 「本輸」의 “肺出於少商”과 동일하며, 경혈의 내용이 나타난다.
68) 「九鍼論」의 “久臥傷氣”와 동일하다.
69) 「天年篇」의 “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와 동일하다.

Table 1. Comparison of Lung spirit figures.



2) 心臟圖

心은 인체 생명활동의 주재자로서 장부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며, 인체의 각 부분을 통제하므로 이를 가리켜 ‘心爲一身之主’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영추』 「사각편」에는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⁷⁰⁾라 하였으며, 『소문』 「영란비전론」에는 “心者君主之官”⁷¹⁾, 『영추』 「사전편」에는 “五臟六腑, 心爲之主”⁷²⁾등의 문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사고 활동이나 장부기능의 협조 그리고 氣血의 通暢 등은 모두 심장의 기능에 의존하므로 심장을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심장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는 『영추』 「사전편」에서 “五臟六腑, 心爲之主, 缺盆爲之道,

70)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30.
71)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72)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85.

話有餘以後謁賦”⁷³⁾라 하였고, 『소문』 「평인기상론」은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鬲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⁷⁴⁾ 라는 하였다.

도가에서도 心을 五臟의 元이며 主宰者로 言及하고 있고, 『황정내경경』에는 心에 대한 言及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心神章」, 「心部章」, 「靈臺章」, 「若得章」, 「呼吸章」, 「心典章」, 「宅中章」 등 많은 부분에 공통적으로 그 뜻을 논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황정내경경」 「心神章」에서 “心神丹元, 字守靈”⁷⁵⁾, 「心典章」 “心典一體, 五臟王”⁷⁶⁾, 「황정외경경」 “心爲國主, 五臟王”⁷⁷⁾ 등과 같이 『황정경』에서도 『내경』의 ‘心者, 君主之官’과 동일한 기본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心臟의 형상에 관하여서는 『황정내경경』에는 “心部之宮, 蓮含華”⁷⁸⁾ 라 하여 心臟을 연꽃이 덜 핀 형상으로 把握하고, 『醫宗必讀』에서 “心象尖圖, 形如蓮葉”⁷⁹⁾와 의미 상동함을 볼 수 있고, 『소문』 「금궤진언론」에서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藏於心…… 其類火.”⁸⁰⁾, 「음양응상대론」에서 “南方生熱…… 心生血, 血生脾, 心主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臟爲心, 在色爲赤”⁸¹⁾이라 하여, 『황정경내경경』에는 “心神丹元, 字守靈”⁸²⁾이라 하여 心을 ‘火宮’、‘南

方火色’、‘丹錦’、‘丹元’, 이라 하였으며, 또한 心臟을 ‘丹元’、‘絳宮’、‘赤城童子’、‘真人’、‘赤子’、‘子丹’、‘靈臺’、‘上玄’、‘中丹田’ 등으로 달리 命名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五臟(肝心脾肺腎)과 膽을 道家에서는 六府라고 稱하는데 『황정내경경』에는 “六府修治, 勿令故”⁸³⁾이라 하여 心을 道家에서는 六府中 元陽府라고 稱하기도 한다.

『내경』에서는 심장의 생리기능을 『소문』 「선명오기편」에는 “五臟所主, 心主脈”⁸⁴⁾이라 하였고, 「오장생성편」에는 “諸血者, 皆屬於心”⁸⁵⁾이라 하였으며, 「육절장상론」에는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⁸⁶⁾이라 하였다. 또한 「선명오기편」에는 “五臟所惡, 心惡熱”⁸⁷⁾, 「영란비전론」에는 “心者, 君主之官, 神名出焉”⁸⁸⁾이라 하였으며, 『영추』 「사각편」에는 “心者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⁸⁹⁾라 하여 사람의 정신의 사유나 의식 및 활동이 모두 심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황정경』에서는 심장의 생리 기능을 調血脈、適寒熱、和營衛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황정내경경』에는 “主適寒熱, 營衛和”⁹⁰⁾하고, “調血理命,

73)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85.

74)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16.

75)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務注: 內象論也, 心爲臟腑之元, 南方火色, 樓神之宅, 故言守靈也.”

76)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典章』第31《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27. “務注: 神以虛守, 心爲樓神之宅, 故爲王也.”

77)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卷下《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43. “務注: 身有三百六十神, 心爲主, 不出戶知天下, 不下堂知四方”

78)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火宮也, 心臟之質, 象蓮花之未開也.”

79) 李仲梓. 醫宗必讀.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民國66年. p.24.

80)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48.

81)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54.

8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神章』第8《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務注: 內象論也, 心爲臟腑之元, 南方火色, 樓神之宅, 故言守靈也”

8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常念章』第10《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20. “務注: 按洞神經云. 六府者謂肺爲玉堂宮, 尚書府, 心爲絳宮, 元陽府, 肝清冷宮, 爛臺府, 膽爲紫微宮, 無極府, 腎爲幽昌宮, 太和府, 脾爲中黃宮, 太素府, 異於常六府”

84)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54.

85)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82.

86)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8.

87)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54.

88)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89)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30.

90)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寒熱陰陽靜躁之義也, 人當和適以營衛其身, 老子經云, 躁勝寒, 靜勝熱, 清淨以爲天下正”

身不枯⁹¹⁾하며, “外應口舌, 吐五華⁹²⁾이라 하여 심장의 생리기능과 동일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기타 장기와의 연관성은 『황정경』에는 “中有童子, 冥上玄⁹³⁾이라 하여 여기서 上玄인 心과 下玄로 腎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정내경경』에서 “丹錦飛裳, 披玉羅⁹⁴⁾하며, “金鈴朱帶, 坐婆娑⁹⁵⁾ 하였는데, 丹錦은 심장의 빛깔을 형상화 한 것이고, 玉羅는 폐의 흰 기운을 형상화 한 것이다.

肺는 심장의 상부에 위치하므로 심장의 華蓋이고, 心은 폐의 아래에 위치하므로 폐의 金방울(金鈴)이며, 朱帶는 금방울과 연결된 것으로 血脈의 형상이며 肺와 연결된 것으로, 婆娑는 심장의 박동을 비유한 것이며, 이는 ‘心主血’, ‘肺主氣’의 기혈이 조절되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영란비전론』의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⁹⁶⁾ 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 『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옥축경』에서는 「사기조신대론⁹⁷⁾、 「본수⁹⁸⁾ 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에서는 「금계진언론⁹⁹⁾、 「

육절장상론¹⁰⁰⁾、 「영란비전론¹⁰¹⁾、 「본수¹⁰²⁾、 「구침론¹⁰³⁾、 「천년¹⁰⁴⁾편의 의학적 내용이 선별되었고, 『의방유취』에서는 『보사도』의 내용에 「육절장상론¹⁰⁵⁾ 내용이 추가되었다.

Table 2. Comparison of Heart spirit figures.



3) 肝臟圖

한의학에서는 肝을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¹⁰⁶⁾이라 하여, 肝臟은 勇敢한 決斷性을 出焉하기 에 將軍에 比喩한 것이다. 肝에는 魂이 所藏되었으

91)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心安體和, 則無病矣”
9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心主口舌, 吐納五臟之液, 辨識五行之味, 故言外應”
9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務注: 腎爲下玄, 其神玄冥, 字育嬰, 心爲上玄, 上玄幽遠, 氣與腎連, 故言冥上玄”
94)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象心臟之色也, 有肺之白氣象, 玉羅.”
95)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部章』第10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6. “務注: 金鈴內藥之象, 朱帶血脈之象, 坐婆娑者, 言神之安靜也, 九眞經云, 黃老君帶, 流金之鈴仙服也.”
96)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1.
97) 「四氣調神大論」에 “且夫心者, 夏之用事也, 天地氣交, 萬物華結, 玄寢魄起, 無厭於養. 英成實長, 夏之德也, 逆之則傷心.”의 수양법과 유사하다.
98) 「本輸篇」의 “心合乎小腸”과 동일하다.
99) 「金匱真言論」의 “南方赤色, 入通于心, 關竅于舌”와 동일하다.

100) 「六節藏象論」의 “主其血脈.”과 유사하다.
101) 「靈蘭秘典論」의 “君主之官也. 神明出焉”과 동일하다.
102) 「本輸」의 “心脈出於中衝”과 동일하며, 경혈의 내용이 나타난다.
103) 「九鍼論」의 “心藏神”과 동일하다.
104) 「天年篇」의 “丈夫至六十, 心氣衰弱, 言多錯忘也.”와 유사하다.
105) 「六節藏象論」의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와 동일하다.
106)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며, 魂은 神名の 輔弼이므로 肝은 宰相이라고 하였으며¹⁰⁷⁾, 『황정경』에서는 “肝神龍煙, 字含明”¹⁰⁸⁾이라 하였다.

‘肝’은 東方의 木에 屬하고, 神의 모습은 靑龍이고, ‘煙’은 變化 無定之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龍煙’이란 肝神의 變化막춤을 말하는 것이며 ‘含明’은 藏하여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즉 ‘龍煙’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¹⁰⁹⁾로 “翳鬱導煙, 主濁淸”¹¹⁰⁾라 하여 ‘翳鬱’은 ‘升發’의 氣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즉 肝의 방위는 東方이며, 東方은 木이니, 봄을 주관하고 生氣의 근본이 되는데, 이는 『소문』 「금궤진언론」에서 “東方靑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¹¹¹⁾이라 하였고, 「육절장상론」에서 “此爲陽中之少陽, 通於春氣”¹¹²⁾하며, 「음양응상대론」에는 “東方生風, 風生木 …… 肝主目.”¹¹³⁾이라 하였다. 이러한 논술은 『황정경』에서 肝의 四時에 따른 오행배속이 동일하다.

그리고 『영추』 「대혹론」의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¹¹⁴⁾라 하여 五臟六腑의 精氣는 血脈을 通하여 눈으로 上注하기 때문에 五臟六腑는 連繫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肝이다. 肝은 藏血을 主로 하고 肝의 經脈은 위로 目繫와 이어져 眼精도 역시 肝의 外候가 되는 것으로, 『영추』 「맥도편」에서 “肝氣通於目, 肝和則

目能辨五色”¹¹⁵⁾, “目受血而能視”¹¹⁶⁾라 하여 肝과 目的 關係를 설명하였는데, 『황정경』에서도 “於藏主目”¹¹⁷⁾하고 “外應眼目, 日月淸”¹¹⁸⁾한다고 하였다. 또한 肝의 精氣가 目에 開竅한다 하여 “百病所鍾, 存無英”¹¹⁹⁾이라 하였다. 이는 肝神을 ‘無英’ 또는 ‘無英公子’라하며, 위치는 좌측에 있고 여러 가지의 疾病이 人體를 병들게 하더라도, 肝神인 無英을 있다면 모든 病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데 “肝氣周還, 終無端”¹²⁰⁾라 하였다. 肝神인 靑龍은 人體의 左에 있고, 肺의 神인 白虎는 人體의 右를 따라 淸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한의학에서의 “肝生於左, 肺藏於右”¹²¹⁾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된다.

이밖에 『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육축경』에서는 「사기조신대론」¹²²⁾, 「음양응상대론」¹²³⁾, 「본수」¹²⁴⁾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에서는 「금궤진언론」¹²⁵⁾, 「육절장상론」¹²⁶⁾, 「영란비전론」¹²⁷⁾, 「오장생성론」¹²⁸⁾, 「선명오기론」¹²⁹⁾, 「본수」¹³⁰⁾, 「천년」¹³¹⁾편의 의학적 내용이 선별되었고,

107) 金賢齋著. 東洋醫學概要. 東洋醫學研究院出版. 서울. 1981. p.52.

108) 張君房撰. 『上淸黃庭內景經·心神章』第8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務注: 肝爲木行東方靑龍之色也. 於藏主目, 日出東方, 木生火, 故曰含明”

109) 周栢聲. 黃庭經醫疏.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p.56.

110) 張君房撰. 『上淸黃庭內景經·心神章』第8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務注: 翳鬱木象也, 得火而煙生, 得陽而氣生, 淸則木明, 濁則暗, 有別本無此一句”

111)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48.

112)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8.

113)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54.

114)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84.

115)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34.

116) 『五藏生成論』에서는 “肝受血而能視”이라 하였다.

117) 張君房撰. 『上淸黃庭內景經·心神章』第8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118) 張君房撰. 『上淸黃庭內景經·肝部章』第11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7. “務注: 肝位屬眼象”

119) 張君房撰. 『上淸黃庭內景經·肝部章』第11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7. “務注: 左爲無英, 肝神在左, 故存之一, 本爲無英, 無英者物生之象也.”

120) 張君房撰. 『雲笈七籤·下部經』권12 《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45.

121) 金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279.

122) 「四氣調神大論」의 수양법과 유사한 “春三月, 天地氣生萬物, 花葉繁茂, 人及芻萌, 順陽之道也, 逆之傷肝也.”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123) 「陰陽應象大論」의 “上主於目”과 유사하다.

124) 「本輸篇」의 “肝合於膽”과 유사하다.

125) 「金匱眞言論」의 “東方靑色入通於肝, 開竅於目.”와 동일하다.

126) 「六節藏象論」의 “肝者罷極之本, 魄之處也.”와 동일하다.

127) 「靈蘭秘典論」의 “君主之官也. 神明出焉”과 동일하다.

128) 「五藏生成論」의 “肝合於筋其榮爪, 肝之合也.”와 유사하다.

129) 「宣明五氣篇」의 “肝主魂”과 동일하다.

『의방유취』에서는 『보사도』의 내용에 「육절장상론」¹³²⁾ 내용이 추가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Liver spirit figures.



4) 脾臟圖

脾와 胃는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부 가운데 하나로서 “脾胃爲後天之本，氣血生化之源”이라 하였다.

또한 脾와 胃는 모두 中焦에 위치하여 經脈을 통하여 서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소문』 「태음양명편」에는 “脾與胃以膜相連耳”¹³³⁾라 하였고, 『난경』 「35難」에는 “胃者脾之府也”¹³⁴⁾라고 하여,

130) 「本輸」의 「肝脈出於大敦」과 동일하며, 경혈의 내용이 나타난다.

131) 「天年篇」의 「丈夫至六十，肝氣衰，肝氣減葉薄膽，目不明也。」와 유사하다.

132) 「六節藏象論」의 「肝者罷極之本，魂之處也。」와 동일하다.

133)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83.

脾와 胃는 表裏關系로 一陰一陽、一臟一腑、一主運化、一主受納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 배합함으로써 脾胃系統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脾를 오행 가운데 ‘土’에 배속시켜 놓았는데, 그 이유는 土는 萬物生長의 母體이며, 生發의 根本이기 때문이다.

『내경』의 “脾胃者，倉庫之官，五味出焉”¹³⁵⁾이나 “谷氣通於脾”¹³⁶⁾의 문구는 脾가 인체의 생리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황정경』에서는 「脾部章」、「脾長章」、「隱藏章」등에서 脾胃의 機能, 存思, 心神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心神章」에서 “脾神常在，字魂停”¹³⁷⁾라 하였고, 「脾部章」에는 “脾部之宮，屬戊己”¹³⁸⁾라 하였고, 「隱藏章」에는 “隱藏羽蓋看天舍”¹³⁹⁾라 하였다.

『소문』 「장기법시론」에는 “脾主長夏，足太陰陽明主治，其日戊己。”¹⁴⁰⁾이라 하여, 戊己日時가 脾氣가 旺盛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干支陰陽과 五行五臟에 있어서 戊는 陽土인 足陽明胃經을 己는 陰土로서 足太陰脾經과 상응함을 뜻한다. 그리고 「금래진언론」에서 “中央黃色，入通於脾”¹⁴¹⁾와 「태음양명편」의 “脾者土也，治中央，常以四時長四臟”¹⁴²⁾ 등과 같은 논술을 통하여 干支、五行、五臟의 배속이 동일

134) 葉林. 難經正義. p.63.

135)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136)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59.

137)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神章』 第8《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務注：中央土爲也，故曰常在，即黃庭之宮也，脾磨食消，神康力壯，故曰魂停”

138)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務注：土宮也，戊己中央之辰也”

139)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隱藏章』 第24《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31. “務注：此明脾宮之事，脾爲丹田黃庭之中央戊土行也，上觀肝肺如蓋如舍也.”

140)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p.145-146.

141)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48.

142) 김기욱, 장계석 공역. 뜻으로 훈(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83.

함을 알 수 있다.

『황정내경경』 「脾部章」에서는 “是爲太倉，兩明童”¹⁴³⁾이라 하였고, 「脾長章」에서 “脾長一尺，掩太倉”¹⁴⁴⁾이라 하였는데, ‘太倉’은 古代에서는 食량을 貯藏하는 큰 倉庫로 『史記』 「平準書」에는 “大倉之粟，陳陳相因”¹⁴⁵⁾이라 하였다. 그런데 『영추』 「창론」에서도 “胃者，太倉也”¹⁴⁶⁾이라 하였고 『소문』 「영란비진론」에는 “脾胃者，倉廩之官，五味出焉.”¹⁴⁷⁾라 하여 脾胃를 ‘太倉’이라 하였으며, ‘明童’은 脾胃의 精氣를 지칭한다.¹⁴⁸⁾

脾胃의 생리기능에 관하여서는 『황정경』의 「脾部章」에는 “消穀散氣，攝牙齒”¹⁴⁹⁾, “主調百穀五味香”¹⁵⁰⁾, “辟却虛羸無病傷”¹⁵¹⁾이라 하였고, 또한 「脾長章」에는 “厥字靈元，名混康”¹⁵²⁾, “治人百病，消穀糧”¹⁵³⁾이라 하였으니, 이는 脾胃의 대표적 기능인

水穀의 運化作用을 말하는 것으로서, ‘消穀散氣’는 『소문』 「경맥별론」에서 말하는 “飲入於胃，游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¹⁵⁴⁾인 脾가 胃를 도와서 飲食物을 消化하며, 그로부터 營養분을 吸收하여 心과 肺의 協助 아래 三焦와 經脈을 통하여, 營養물질을 全身에 運送함으로서 臟腑와 組織을 기른다는 것으로 五臟六腑가 필요로 하는 水穀의 精微로운 성분은 모두가 脾臟의 運化 機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主調百穀五味香”¹⁵⁵⁾는 『영추』 「맥도편」에서는 “脾氣通於口，脾和則口能知五味矣”¹⁵⁶⁾ 즉 脾가 口로 開竅하기 때문에 口味와 食慾 등은 모두 脾의 機能과 密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辟却虛羸無病傷”, “外應尺宅，氣色芳”¹⁵⁷⁾는 『영추』 「경맥」의 “穀入於胃，脈度以通，血氣乃行”¹⁵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정경』에서는 人體를 三部八景二十四眞神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는데, 下部八景眞神의 中心은 脾이며, 또한 脾는 下黃庭으로서 人體의 근본이 되는 것을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 脾는 中央土로서 運化의 機能을 주관하여 水穀을 소화 흡수하여 精味를 人體의 모든 부분에 輸送하는 生化的 源泉이며¹⁵⁹⁾, 『영추』 「결기」의 “上焦開發，宣五穀味”¹⁶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황제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옥축경』에서는 「음양상대론」¹⁶¹⁾과 「본

- 14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9. “務注：太倉肚府此明童，謂肚神名混康”
- 144)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10. “務注：太倉胃也，中黃經云，胃爲太倉君，元陽子曰，脾正橫在胃上也.”
- 145) 史記. 卷三十，平準書第八，四部備要，史部. 中華書局據武莫殿本校刊.
- 146)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201.
- 147)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 148) 周楣聲. 黃庭經醫疏.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p.68.
- 149)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p.108-109. “務注：脾爲五臟之樞，脾磨食消性氣乃全，齒爲羅千，故攝牙齒”
- 150)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9. “務注：口中滋味，脾磨之所致也”
- 151)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9. “務注：內指事也，食消故也”
- 15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長章』 第15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10. “務注：脾磨食消，內外相應，大腸，爲胃之子，混元而受，納之康安也”
- 15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長章』 第15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10. “務注：胃宮營養，則無病傷”

- 154)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42.
- 155)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9. “務注：口中滋味，脾磨之所致也”
- 156)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34.
- 157)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脾部章』 第1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9. “務注：尺宅面也，飢飽虛羸形乎面色”
- 158)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86.
- 86) 李遠國. 道教氣功養生學.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8. p.206.
- 160)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87.
- 161) 『陰陽應象大論』의 “上主於口”와 유사하다.

수」¹⁶²)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에서는 「금궤진언론」¹⁶³)、「영란비전론」¹⁶⁴)、「천년」¹⁶⁵)、「맥도」¹⁶⁶)편의 의학적 내용이 선별되었고, 『의방유취』에서는 『보사도』의 내용에 「금궤진언론」¹⁶⁷)、「육절장상론」¹⁶⁸)、「영란비전론」¹⁶⁹)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Spleen spirit figures.



5) 腎臟圖

한의학에서 腎의 기능은 精을 藏하고, 水液과 骨을 主管 하며, 髓를 生하고 耳로 開竅하고 前陰과 後陰을 다스리며, 그의 華가 髮에 있다. 『황정경』에

서는 腎을 ‘密戶’、‘幽室’、‘幽闕’、‘玄冥’、‘下玄’、‘玄卿’ 등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그 형상에 관하여서는 ‘玄闕圓’、‘伏牛’등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황정경』에서 腎의 機能을 살펴보면 “腎爲藏精宮，當密受之使不躁泄”¹⁷⁰)，“謂存念腎臟，令其內明，專氣保精，無使泄散”¹⁷¹)、“腎屬水，故曰玄冥，腎精爲子，故曰育嬰也”¹⁷²)，“腎爲下玄，其神玄冥，字育嬰”¹⁷³)、“腎神玄冥字育嬰，配屬北方，主暮也，人能止精，則長壽，河上公曰腎藏精”¹⁷⁴)、“五臟之主，腎最精”¹⁷⁵) 등이라 하여 한의학의 ‘腎藏精’ 기능과 유사하며, 『소문』 「육절장상론」에서 “腎者主蟄，封藏之本，精之處也”¹⁷⁶)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황정경』에는 “主諸六府，九液源”¹⁷⁷)，“漑益入液，腎受精”¹⁷⁸)라 하여, 腎이 六腑九液의 源泉이며, 腎水가 人體의 모든 津液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소문』 「상고친진론」의 “腎者主水，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¹⁷⁹)와 「수열혈론」의 “諸水皆生於腎乎。岐伯曰腎者牝臟也，地氣上者屬於腎而生水液也。”¹⁸⁰) 그리고 “腎者胃之關也，關門不利，故聚水而從其類也。”¹⁸¹)라 하여 腎水가 肺에 들어가면 多涕하

- 170)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上有章』 第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10. p.99. 務成子の 주석을 인용함.
- 171)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上有章』 第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0. 역시 務成子の 주석을 인용함.
- 17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心神章』 第8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4.
- 173)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 174)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經歷章』 卷23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28.
- 175) 張君房 撰 『雲笈七籤·下部經』 第3 《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47.
- 176)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8.
- 177)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 178)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32. “務注: 咽液流入腎宮，化爲玉精也.”
- 179)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2.
- 180)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12.

- 162) 「本輸篇」의 “脾合乎太陰，脾連胃”와 유사하다.
- 163) 「金匱眞言論」의 “中央黃色，入通於口.”와 유사하다.
- 164) 「靈蘭秘典論」의 “倉廩之宮，化物出焉”과 동일하다.
- 165) 「天年篇」의 “丈夫至七十脾氣虛，而皮膚枯瘦者矣.”와 유사하다.
- 166) 「脈度篇」의 “脾氣通則口知五味”와 동일하다.
- 167) 「金匱眞言論」의 “中央黃色，入通于口”와 동일하다.
- 168) 「六節藏象論」의 “肝者罷極之本，魂之處也.”와 동일하다.
- 169) 「靈蘭秘典論」의 “亦爲倉廩之官也.”와 유사하다.

고, 肝에 入하면 多泪하고, 脾에 入하면 多涎하고, 心에 入하면 多汗하고, 腎에 入하면 多唾한 것은, 『황정경』에서 “五臟六腑九液交連, 百脈通流, 廢一不可, 六府如上說, 九液九竅之津液”¹⁸²⁾라 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

腎氣의 성쇠는 생식과 성장발육의 능력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소문』 「상고친진론」에서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 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 五八, 腎氣衰, 墮齒枯.”¹⁸³⁾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腎과 命門의 관계를 『황정경』에는 “兩部水王對生門”¹⁸⁴⁾、“從有密戶前生門”¹⁸⁵⁾、“幽室內明照陽門”¹⁸⁶⁾라 하여 腎에는 兩府가 있으며, 하나는 腎宮이고 하나는 命門이라 하여 마주 보고 있다 하였으니, 이는 命門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務成子는 心과 腎의 관계를 上玄과 下玄으로 비유하여 “心爲上玄, 上玄幽遠, 氣與腎連, 故言冥上玄”¹⁸⁷⁾라 하였다.

이밖에 『황제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옥축경』에서는 「사기조신대론」¹⁸⁸⁾、「오색

」¹⁸⁹⁾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에서는 「상고친진론」¹⁹⁰⁾、「금궤진언론」¹⁹¹⁾、「영란비진론」¹⁹²⁾、「육절장상론」¹⁹³⁾、「본수」¹⁹⁴⁾、「맥도」¹⁹⁵⁾편의 의학적 내용이 선별되었고, 『의방류취』에서는 『보사도』의 내용에 「금궤진언론」¹⁹⁶⁾、「천년」¹⁹⁷⁾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Kidney spirit figures.



181)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311.

182)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183)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p.31-32.

184)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8. “務注: 腎臟雙對故, 曰兩府, 腎宮水王, 則化爲赤子, 故曰對生門”

185)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99. “務注: 密戶腎也, 腎爲藏精宮, 當密受之使不蹶泄, 生門命門也.”

186)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0. “務注: 幽室腎也, 陽門命門也, 謂存念腎臟, 令其內明, 專氣保精, 無使泄散, 朗照內外, 兼受命門也.”

187)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腎部章』 第1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05.

188) 「四氣調神大論」의 수양법의 내용과 유사한 문장으로 “冬之用事, 三月乾坤氣閉, 萬物伏藏, 戊寢寅起, 與玄陰並, 外陰內陽以養骨齒, 以治其神, 逆之則傷腎.”이라 논술되어 있다.

189) 「五色篇」의 “腎合於骨”과 유사하다.

190) 「上古天真論」의 “腎氣衰, 髮墮, 齒氣衰, 焦經脈空虛”와 유사하다.

191) 「金匱真言論」의 “北方黑色入通於腎, 開竅於二陰”와 유사하다.

192) 「靈蘭秘典論」의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과 동일하다.

193) 「六節藏象論」의 “腎者, 腎臟之本, 精之處也.”과 동일하다.

194) 「本輸篇」의 “腎脈出於湧泉.”과 동일하다.

195) 「脈度篇」의 “腎氣通, 則聞五音”과 동일하다.

196) 「金匱真言論」의 “北方黑色, 入通于腎, 關竅于二陰”와 동일하다.

197) 「天年篇」의 “凡丈夫至六十, 腎氣衰, 髮墮, 齒氣焦枯, 經脈空虛, 人之有如枯, 七十形體皆極, 九十腎樹之有根也.”와 유사하다.

6) 膽神圖

한의학에서의 五臟(肝心脾肺腎)을 도가에서는 膽을 삼입하여 六府라고 칭하는데, 『황정내경경』에는 “六府修治, 勿令故”¹⁹⁸⁾라 하였다. 그리고 「心神章」에서 “字魂停, 膽神龍曜, 字威明, 六府五臟, 神體精”¹⁹⁹⁾이라 하였고, “膽部之宮六府精”이라 하여 무릇 六府의 神은 膽府에만 이른다고 하였다.

도가의 五臟神에 관한 存思法이 발전하여 『황정경』에서는 오장육부의 神과 이를 확대하여 二十四眞을 상세히 논하여 五臟、心、肝、脾、肺、腎에 관련된 전문적인 편장이 있지만, 六腑에 관한 학설은 통일되지 않아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의 六府 혹은 膽、胃、膀胱、大腸、小腸、臍(命門)을 六腑라 하였다. 이러한 흔적이 『소문』 「오장별론」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黃帝問曰: 余聞方士, 或以腦髓爲臟, 或以腸胃爲臟,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 不知其道, 願聞其說. 岐伯對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²⁰⁰⁾라 하여 당시 方術士들이 각기 주장한 혼돈된 장부의 개념에 있어, 膽을 奇恒의 腑로 규정함에서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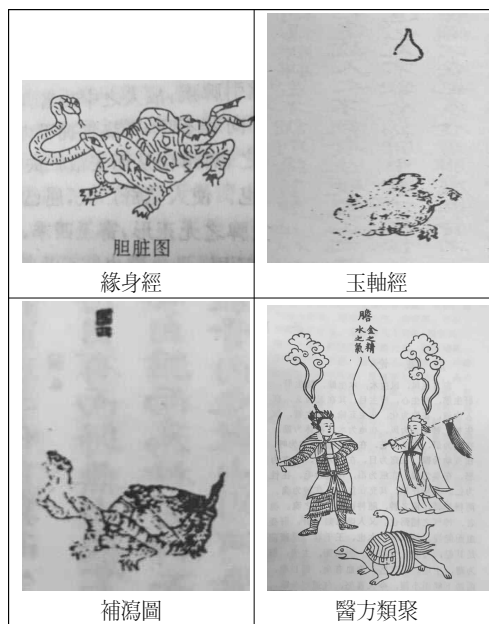
다른 편장인 「영란비전론」에서 12臟의 不同한 貴賤과 기능을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²⁰¹⁾이라 하였고, 「육절장상론」의 樞기능을 작동하는 小陽相火의 情志活動의 총괄을 “凡十一臟 取決於膽也.”²⁰²⁾이라 하여 膽의 기능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황제내경』에서 인용한 유사한 편장은 『연신경』과 『육축경』에서는 「음양응상대론」²⁰³⁾편과

유사하며, 『보사도』와 『의방유취』에서는 「영란비전론」²⁰⁴⁾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의방유취』에 수록된 五臟神名은 『四氣攝生圖』에서 “肝神은 龍煙이며 字는 唵明이고, 心神은 丹元이며 字는 守靈이고, 肺神은 皓華이며 字는 虛成이고, 腎神은 玄宜이며 字는 育嬰이고, 脾神은 常在이며 字는 魂庭이고, 膽神은 龍曜이며 字는 威明이다.”²⁰⁵⁾이라한 내용과 같다. 『사기섭생도서』의 五臟神圖는 『육축경』과 『의방유취』에서는 五臟神과 五臟象을 각각 별도로 표현한 것과 달리 五臟象에 神이 깃들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의방유취』는 『사기섭생도서』에서 언급된 五臟神名과 字를 유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록에 『사기섭생도서』의 五臟圖를 附入한다.

Table 6. Comparison of Gall Bladder spirit figures.



198)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常念章』 第22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120. “務注: 按洞神經云. 六府者謂肺爲玉堂宮, 尚書府, 心爲絳宮, 元陽府, 肝清冷宮, 爛臺府, 膽爲紫微宮, 無極府, 腎爲幽昌宮, 太和府, 脾爲中黃宮, 太素府, 異於常六府”

199) 張君房 撰. 『上清黃庭內景經·上清章』 卷11 《雲笈七籤·四部叢刊廣篇 28》. 서울. 法仁文化社. 1991. pp.104-105.

200)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86.

201)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0.

202)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78.

203) 「陰陽應象大論」의 “天有五行, 以生寒暑燥濕; 人有五氣, 以生喜怒悲憂恐, 故喜怒傷氣, 寒暑傷形, 喜怒不節, 寒暑過度, 生乃不固”와 유사하다.

204) 「靈蘭秘典論」의 “膽者中正之官, 決斷出於此焉.”과 동일하다.

205) 不著撰人. 『四氣攝生圖』《正統道藏》28冊. 法仁文化社. 서울. 1987. p.22877-2282. 膽神은 ‘龍曜’에 관하여 『醫方類聚』에서는 ‘龍曜’라 수록되어 있다.

IV. 結 論

한의학에서는 臟腑에 관한 기록은 유구한 歷史가 있으며, 또한 신체 내부의 臟腑를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圖像 역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圖像은 현재의 관점에서 해부학적 실제 상황과 다른 圖像 역시 존재한다. 한의학에서의 臟腑에 대한 그림은 제작자의 의학적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도교의학에서는 신체 내부의 血肉筋骨臟腑를 표현한 것에 대하여 ‘內景’, ‘內境’, ‘內照’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대 해부학과 차별되는 독특한 圖像을 제작하고 전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교의학의 관점에서 圖像을 그리고 해설한 『黃庭通甲緣身經』 및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의 「五臟圖」, 『黃庭通甲五臟六腑補瀉圖」,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의 연구를 통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한다.

1. 『黃庭通甲緣身經』과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및 『黃庭通甲五臟六腑補瀉圖』은 唐·宋 시대에 나타난 3부의 도교 저서이다. 이 3부 저서의 특징은 바로 『內經』과 『黃庭經』의 장부이론에 의거하며, 오장과 하나의 부(膽腑)에 각각 하나의 짐승의 모습을 한 神이 배합되었다. 그리고 이 神들은 存思法을 이용한 수련의 과정에 사용된다. 특히 唐代의 女道士 胡愔이 저술한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는 한의학의 整體恒動觀에 입각하고 陰陽五行學說을 운용하여, 인간의 精神과 情志, 형체 조직, 呼吸, 五官과 장부의 연계, 그리고 자연 환경의 각종 원인이 장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2. 『의방유취』에 제5권에서 인용된 「오장육부도」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胡愔의 저작인 『黃庭通甲五臟六腑補瀉圖』과 일치하므로 胡愔의 영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의 세 문헌에 누락된 神名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며, 그 명칭은 『四氣攝生圖』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므로 『四氣攝生圖』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고, 胡愔의 문헌에 대하여 첨삭이 된 부분도 보이므로 胡愔의 저작이 그대로 삽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3. 네 문헌의 圖像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黃庭通甲緣身經』과 『黃庭通甲五臟六腑補瀉圖』는 짐승 모양의 五臟神만 그림에 표현되어 있으며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는 짐승 모양의 五臟神과 五臟의 모양을 표현한 그림이 동물모양 그림 위에 함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醫方類聚』는 짐승 모양의 五臟神, 사람 형상의 그림, 五臟의 모양을 표현한 그림, 구름 문양, 卦象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글로 표현된 오장신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四氣攝生圖』에 표현된 五臟圖에는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과 『醫方類聚』에서 동물 모양의 神과 五臟의 모습이 별도로 그려져 있지 않고 五臟 안에 神이 깃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References

1. 미상. 正統道藏 28冊 『四氣攝生圖』. 서울. 法仁文化社. 1987.
anonymous. Siqisheshengtuxu of Zhengtongdaozang Book 28th. Seoul. Beob-inmunhwa. 1987.
2. 張君房. 雲笈七籤 上清黃庭內景經. 서울. 法仁文化社. 1989.
JF Zhang. Shangqinghuangting-neijingjing of Yunjiqian. Seoul. Beob-inmunhwa. 1989.
3. 王明.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78.
M Wang. Taipingjinghejiao. Beijing. Chunghwabook. 1978.
4. 葉林.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L Ye. Nanjingzhengyi. Shanghai. Shanghan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81.
5.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SD Kim ed.. Taoist ideas dictionary.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6.

6.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SM Sun. Qianjinyaof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7. 張君房 編輯 蔣力生 等 校注. 雲笈七籤. 北京. 華夏出版社. 1996.
JF Zhang original work. Jianglisheng et al. ed.. Yunjiqiqian. Beijing. Huxia publishing house. 1996.
8. 미상. 正統道藏 第56冊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서울. 法仁文化社. 1987.
anonymous. Shangqinghuangting-neijingjing of Zhengtongdaoang Book 56th. Seoul. Beob-inmunhwas. 1987.
9. 麥谷邦夫. 黃庭內景經 試論. 東洋文化. 62. 1982.
KN Mugitani. Study of Huangtingneijingjing. Oriental culture. 62. 1982.
10. 미상. 正統道藏 第31冊 黃庭遁甲緣身經 法仁文化社. 서울. 1987.
anonymous. Huangtingdunjiayuanshenjing of Zhengtongdaoang Book 31th. Seoul. Beob-inmunhwas. 1987.
11.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JX M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iterature. Shanghai. Shanghan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90.
12. 浙江省中醫研究所. 校正醫方類聚 제5권. 서울. 醫聖堂. 1993.
Subcommittee to study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Zhejiang Province. Correction Uibang-yuchwi Book 5th. Seoul. Uiseongdang.
13. 김기옥 外 15人.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KW Kim et al.. History of Korean Medicine. Seoul. Daeseong-uihagsa. 2006.
14. 陳可冀. 中國傳統老年醫學文獻精華. 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KJ Chen. The essenc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literature Elderly.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ological documentation publishing house. 1987.
15. 李仲梓. 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66年.
Zhongzi Li. Yizongbidu. Taibei. Wenkuang Publishing Company. 1977.
16. 金賢齋著. 東洋醫學概要.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HJ Kim. Summary of Oriental Medicine. Seoul.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press. 1981.
17. 周楣聲. 黃庭經醫疏. 合肥市.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MS Zhou. Huangtingjingyishu. Hefei. Anhu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91.
18. 김기옥, 문재곤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KW Kim, JG Moon. trans.. Translated Hwangjenaegyeong-yeongchu. Seoul. Beob-inmunhwas. 2014.
19. 김기옥, 장제석 공역. 뜻으로 풀(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KW Kim, JS Zhang. trans.. Translated Hwangjenaegyeong-somun. Seoul. Beob-inmunhwas. 2014.
20. 미상. 正統道藏 第11冊 黃庭內景 五臟六腑補瀉圖. 서울. 法仁文化社. 1987.
anonymous. Huangtingneijingjing-wuzangliufu - buxietu of Zhengtongdaoang Book 11th. Seoul. Beob-inmunhwas. 1987.
21. 李起熏. 內景圖와 修真圖에 關한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2013.
KH Lee. A Study on Neijing tu & Xiuzhen tu - Focusing on the su-seung-hwa-gang of Traditional Medicine -. Seoul. Kyung

- Hee University. 2013.1993.
22.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1995.
- SB Park. A Study of the effect of Taoism in Oriental Medicine. Seoul. Dongguk University. 1995.
23.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2006.
- DH Kim. Ojanyukbudo cited in Euibangyuchwi - A Study in Terms of Medical History Science.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6.
24. 金大亨, 安相佑.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3. 9(2).
- DH Kim, SW Ahn.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i.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3. 9(2).

Supplement 1. Comparison of Lung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시 [咽: XI]	시 [咽]	시 [咽]	시 [咽]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肺神皓華, 字虛成	肺神皓華, 字虛成
神形	白狩	白獸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사자형의 측면 모습	白獸
臟形	경쇠 [懸磬] 를 매단 것과 같음	경쇠 [懸磬] 를 매단 것과 같음	爲五臟之華蓋, 本一居上, 對胸有六葉 …… 重三斤三兩.	爲五臟之華蓋, 本一居上, 對胸有六葉, 色如縞映紅 …… 重三斤三兩.
臟象	肺合於大腸, 上主於鼻 등	肺合於大腸, 上主於鼻 등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在形爲皮毛. 肺脈出於少商 등	西方白色入通于肺, 關竅于鼻. 在形爲皮毛. 肺脈出於少商 등
情志	肺主魄	肺生魄	又爲魄門, 上玉堂, 肺者相傳之官也	肺生魄
신의 性質	其神多怒	肺臟其神多怒者, 蓋發於肺臟也	其神多怒, 人之怒者, 蓋發於肺臟.	其神多怒, 人之怒者, 蓋發於肺臟.
신의 상관성	魄化爲玉童, 長七寸, 往來於肺臟	魄化爲玉童, 長七寸, 往來於肺臟	化爲玉童長七寸, 素衣持兵杖, 往來於肺腑也.	化爲玉童, 長七寸, 素衣持兵杖來往于肺也
안신원칙	當收思斂欲, 含仁育義, 不怒其怒, 不聲其聲, 息其聲則會乎太和	當收思斂欲, 含仁育義, 不怒其怒, 不聲其聲, 息其聲則會乎太和	當收思斂欲, 合仁育義, 不怒其怒, 不聲息, 其金而後全, 其生則合乎太和也. 이후 「修養法」、「藥方消風散」、「六氣法」、「月食禁忌法」、「導引法」을 덧붙여 열거	當收思斂欲, 合仁育義, 不怒其怒, 不聲息, 其金而後全, 其生則合乎太和也. 이후 「相肺藏病法」을 덧붙여 열거
『황제내경』과 유사한 문장	「四氣調神大論」 「陰陽應象大論」 「本輸」	「四氣調神大論」 「陰陽應象大論」 「本輸」	「金匱真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本輸」 「九針論」 「天年」	「金匱真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本輸」 「九針論」 「天年」
도상의 특징	肺臟의 神을 魄로 여기며, 그 신은 多怒하고 白獸를 肺神에 비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마도 獸의 暴怒 습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백수의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를 선택하여 폐장 神의 대표로 삼았다.			

Supplement 2. Comparison of Heart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아 [阿: A]	아 [阿]	아 [阿]	아 [阿]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亦號五神, 君亦號太衛公, 亦號曰靈臺 …… 心神丹元, 字守靈.	亦號五神, 君亦號太衛公, 亦號曰靈臺 …… 心神丹元, 字守靈.
神形	朱雀	朱鳥	圖片의 명칭이 없지만 附圖와 『緣身經』은 일치함	朱雀鳥
臟形	其象如蓮花	其象如蓮花	居肺下肝上, 對鳩尾下一寸, 色如緜映絳, 形如蓮花未開之狀 …… 重十二兩	居肺下肝上, 對鳩尾下一寸, 色如緜映絳, 形如蓮花未開之狀 …… 重十二兩
臟象	心合乎小腸, 主其血脈, 上於舌 등.	心合乎小腸, 主其血脈, 上於舌 등.	南方赤色入通於心, 開竅於舌, 在形爲脈, 出於中衝 등	南方赤色, 入通于心, 關竅于舌 …… 등
情志	心主神	心生神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	心者, 生之本, 神之處也
神의 性質	其神躁而無準	其神暴而無準	명확한 설명이 없음	人之暴急者, 蓋發於心<府>也. 欲安其神, 而全其形者, 則全忠履孝, <補>義安仁”
神의 상관성	化爲玉女, 身長八寸, 持玉英	化爲玉女, 身長八寸, 持玉英,	이와 같은 비유가 없음	化爲玉女, 長八寸, 錦衣持玉英,
안신원칙	全忠履孝, 輔義安仁, 止其風, 靜其急, 自其熾, 澄其神, 而全其形, 則合中和也.	全忠履孝, 輔義安仁, 止其風, 靜其急, 自其熾, 澄其神, 而全其形, 則合中和也.	安神의 원칙은 없지만, 이후 「修養法」、 「藥方」 五參圓、 「六氣法」、 「月食禁忌法」、 「導引法」 을 덧붙여 열거	全忠履孝, <補>義安仁, 止風<爭>, 其火息, 靜其急, 其熾澄, 其神而全其形, 則合中和也. 이후 「相心藏病法」을 덧붙여 열거
『황제내 경』과 유사한 문장	「四氣調神大論」 「本輸」	「四氣調神大論」 「本輸篇」	「金匱真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本輸」「九鍼論」 「天年」	「金匱真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本輸」「九鍼論」 「天年」
도상의 특징	心藏神은 神을 주관하는데 一說에는 本神이라 하였으며, 그 성질은 燥(暴)하며 기준이 없다. 取火하려는 상징으로 주작을 선택하여 本神에 비유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방위의 神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Supplement 3. Comparison of Liver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쉬 [嘘: SHI]	쉬 [嘘: SHI]	쉬 [嘘: SHI]	우 [吁: YU]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肝神龍煙, 字含明 肝號大尙書, 亦號大夫, 爲清冷宮
神形	龍	龍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龍의 모습	靑龍
臟形	바가지(匏)를 매단 것과 같음	호리병(瓠)을 매단 것과 같다 같음	居心下小近, 左三葉右四葉, 色如縞映紺 …… 重四斤四兩.	居心下小近, 左三葉右四葉, 色如縞映紺 …… 重四斤四兩.
臟象	肝合於膽, 上主於目 등.	肝合於膽, 【胰】上主於目. 등	東方靑色入通於肝, 開竅於目. 在形爲筋, 肝脈出於木. 등	東方靑, 入通於肝, 關竅相于目 …… 肝色靑翠, 大小相重之象也 등
情志	肝 <主> 魂	肝 【生】 魂	肝者, 罷極之本, 魂之處也	肝 <生> 魄
神의 性質	其神好仁, 人之行惠者蓋發於肝 也	其神好仁, 人之行惠者蓋發於肝 也	명확한 설명이 없음	其神好人, 人惠, 蓋發於肝也
신의 상관성	化爲二玉女, 玉童, 一靑衣, 一黃衣, 各長<七>寸, 一負龍, 一持玉漿, 出入於肝臟也.	化爲二玉女, 玉童, 一靑衣, 一黃衣, 各長【一】寸, 一負龍, 一持玉漿, 出入於肝臟也.	이와 같은 비유가 없음	化爲二玉童, 一靑衣, 一黃衣, 各長<九>寸, 持玉漿出于肝臟
안신원칙	欲安其魂而延其齡者, 則當澤被芻棘, 恩覃庶類, 而後全其生, 則合乎太清者也	欲安其魂而延其齡者, 則當澤被芻棘, 恩覃庶類, 而後全其生, 則合乎太清者也	安神의 원칙은 없지만, 이후 「修養法」、「藥方」、「 六氣法」、「月食禁忌法 」、 「導引法」을 덧붙여 열거	欲安其魂而延其齡者, 則當澤被芻棘, 恩覃庶類, 而後全其生, 則合乎太清者也. 이후 「相肝藏病法」을 덧붙여 열거
『황제내 경』과 유사한 문장	「四氣調神大論」 「陰陽應象大論」 「本輸」	「四氣調神大論」 「陰陽應象大論」 「本輸」	「金匱眞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五藏生成論」 「宣明五氣論」 「本輸」「天年」	「金匱眞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五藏生成論」 「宣明五氣論」 「本輸」「天年」
도상의 특징	肝臟神은 魂으로 삼고, 그 성질은 好仁하고, 龍에 비유되며, 전통적인 방위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용이 나타나 제 때에 단비를 내려 만물에 은택을 준다는 보편적인 신앙과 관계가 있다.			

Supplement 4. Comparison of Spleen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후 [呼: HU]	후 [呼]	후 [呼]	후 [呼]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神常在, 字魂定
神形	鳳	鳳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그림은 鳳凰의 모습임	鳳
臟形	如覆盆	如覆盆	象如覆蓋 掩太蒼在臍上三寸, 色如縞如黃 …… 重二斤三兩.	掩太蒼在臍上三寸, 色如縞如黃 …… 重二斤三兩.
臟象	脾合乎太陰, 脾連胃, 上主於口 등	脾合乎太陰, 脾連胃, 上主於口 등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在形爲頰. 脾脈出爲隱白, 爲五臟之樞也. 등	中央黃色, 入通于口 …… 脾爲黃庭, 亦爲中主, 爲黃龍君也, 亦爲諫議, 亦爲倉廩之官也 등
情志	脾〈主〉意	脾【主】意	脾者, 肉之本, 意之本處也.	脾〈生〉意
신의 性質	其神多嫉妒, 人之嫉妒蓋起於脾臟也	其神多嫉妒, 人之嫉妒蓋起於脾臟也	명확한 설명이 없음	其神〈列〉嫉妒, 人之嫉妒蓋起於脾臟也
신의 상관성	化爲玉女, 長六寸, 循環於脾臟也	化爲玉女, 長六寸, 循環於脾臟也	이와 같은 비유가 없음	化爲〈一〉玉女, 長〈七〉寸, 循環於脾臟也
안신원칙	欲安其神, 則當去欲寡色, 少思屏慮, 長其土德, 而後全其生也	欲安其神, 則當去欲寡色, 少思屏慮, 長其土德, 而後全其生也, 則合乎太陰	安神의 원칙은 없지만, 이후 「修養法」、「藥方」、「 六氣法」、「月食禁忌法 」、「導引法」을 덧붙여 열거	欲安其〈意〉, 則當去欲寡色, 少思屏慮, 長其土德, 而後全其生也, 則合乎太陰 이후 「相脾藏病法」을 덧붙여 열거
『황제내 경』과 유사한 문장	「陰陽應象大論」 「本輸」	「陰陽應象大論」 「本輸」	「金匱眞言論」 「靈蘭秘典論」 「天年」「脈度」	「金匱眞言論」 「六節藏象論」 「靈蘭秘典論」
도상의 특징	脾臟神은 意라 여기고, 그 성질은 嫉妒가 많다. 『緣身經』과 『玉軸經』 및 『醫方類聚』 모두에서 “婦人則妒劇者, 乘陰氣也”라 여겼다. 때문에 陰性 특징을 지닌 鳳에 비유하고 있으니, 이는 陽인 龍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Supplement 5. Comparison of Kidney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취 [吹: CHUI]	취 [吹: CHUI]	취 [吹: CHUI]	취 [吹: CHUI]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神玄宜, 字育嬰
神形	起立 白鹿兩頭	坐形 白鹿兩頭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附圖는 일치하고 書法만 다름	白鹿, 兩頭生智
臟形	如圓石	如圓石	左腎右腎, 前對臍, 搏著於腰脊, 如縞映紫 …… 人之有腎, 如樹之有根也. 重二斤二兩.	如懸石 左腎右腎, 前對臍, 搏著於腰脊, 如縞映紫 …… 人之有腎, 如樹之有根也. 重二斤二兩.
臟象	腎合於骨, 上主於齒 등	腎合於骨, 上主於齒 등	北方黑色入通於腎, 開竅於二陰, 形在爲骨, 久立傷損骨, 腎脈出於湧泉 등.	北方黑色, 入通于腎, 關竅于二陰 …… 등
情志	腎者, 陰之精	腎者, 陰之精	腎者, 封藏之本, 精之處也.	腎者, 精之處也.
신의性質	其神和也, 人之柔順者蓋起發於腎藏也	其神和也, 人之柔順者蓋起發於腎藏也	명확한 설명이 없음	其神和也, 人之柔順者蓋起發於腎藏也
신의상관성	化爲玉童, 長一尺, 出入於腎臟.	化爲玉童, 長一尺, 出入於腎臟.	이와 같은 비유가 없음	化爲玉童, 長一尺, 出入于腎藏, 其神和也
안신원칙	當仁德平廣, 膏潤萬物, 長其精, 順其志, 而後全其生形, 則合乎太清者也.	當仁德平廣, 膏潤萬物, 長其精, 順其志, 而後全其生形, 則合乎太清者也.	安神의 원칙은 없지만, 이후 「修養法」、「藥方」、「六氣法」、「月食禁忌法」、「導引法」을 덧붙여 열거	人之柔順, 其至而後全生, 則合乎太清也 이후 「相腎藏病法」을 덧붙여 열거
『황제내경』과 유사한 문장	「四氣調神大論」 「五色」	「四氣調神大論」 「五色」	「上古天真論」 「金匱真言論」 「靈蘭秘典論」 「六節藏象論」 「本輸」「脈度」	「上古天真論」 「金匱真言論」 「靈蘭秘典論」 「六節藏象論」 「本輸」「天年」
도상의 특징	腎臟神과 醫家は 상통하지 않아, ‘志’이라 말하거나 또한 ‘精’이라 한다. 혹은 道家가 중시한 修煉精氣과 관계가 있다. 글 가운데 그 성질은 柔順이라 칭하고, 사슴에 비유하거나 혹은 사슴의 운순한 습성과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슴이 전통 신앙 중에서 장수를 상징이기에, 腎이 선천적의 근본이 되며 사슴이 腎臟의 神으로 비유하여 마땅히 長生久視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쌍두사슴의 형상은 당연히 腎의 구체적인 형태와 관계가 있다.			

Supplement 6. Comparison of Gall Bladder spirit figures.

	『緣身經』	『玉軸經』	『補瀉圖』	『醫方類聚』
호흡	시 [嘻: XI]	시 [嘻]	시 [嘻]	시 [嘻]
神名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膽神龍嚙, 字威明.
神形	龜蛇	龜蛇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附圖는 일치하고 畫法만 다름	膽蛇
臟形	如懸瓠	如懸瓠	膽博著肝色, 如縹映青, 重三兩三銖.	膽博著肝色, 如縹映青, 重三兩三銖.
臟象	膽合膀胱, 上主於毛髮 등	膽合膀胱, 上主於毛髮, 故人髮枯者, 膽竭也.	膽合膀胱, 上主於毛髮 등	夫膽者, 金之精, 水之氣 등
情志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膽者中正之官, 決斷出于此焉.
神의 성질	其神勇, 人之勇決者蓋發於膽臟也	其神勇, 人之勇決者蓋發於膽臟也	명확한 설명이 없음	其神<<多勇決>>者, 蓋發於膽臟
신의 상관성	化爲玉童, 長一尺, 戟其手, <賓士於膽>	化爲玉童, 長一尺, 戟其手, 【奔馳於膽藏】.	이와 같은 비유가 없음	化爲玉童, 長一尺, 戟戟在手, 出入奔馳于膽囊之間
안신원칙	息忿寢爭, 與仁輔義, 其後全生也	息忿寢爭, 與仁輔義, 其後全生也	安神之 원칙은 없지만, 修養法、藥方、六氣法、月食禁忌法、導引法 於其後를 덧붙여 열거	欲安其身, 當息忿寢爭, 與仁輔義, 其後全生也, <<則合乎太和也>>.
『황제내경』과 유사한 문장	「陰陽應象大論」	「陰陽應象大論」	「靈蘭秘典論」	「靈蘭秘典論」
도상의 특징	비록 명확한 膽藏의 神의 명칭이 언급되진 않았고, ‘金之精’과 같은 개념은 醫家の 개념과 모두 상통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道家의 수련 관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성질인 神勇이라고 龜蛇로써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長壽의 상징인 龜蛇와 관련이 있다.			

Supplement 7. Five viseral figures of 『Siqisheshengtuxu』

 <p>肝神 字名合龍 明煙</p> <p>色青其象如懸匏其神如龍</p>	 <p>心神 字名守丹 靈元</p> <p>心之狀其色赤其象如蓮華其神如朱雀</p>	 <p>脾神 字名魂 常在</p> <p>脾之狀其色黃其狀如覆盆其神如鳳</p>
 <p>肺神 字名厓皓 成華</p> <p>肺之狀其色白其象懸磬其神如白獸</p>	 <p>腎神 字名育玄 嬰其</p> <p>腎之狀其黑其象如石其神如白鹿兩頭</p>	 <p>膽神 字名威龍 明耀</p> <p>膽之狀其色青其象如懸瓠其神如龜蛇</p>